

제 7 편

농 업(農業)

제 1장 농업 지원기관

제 2장 농산물의 생산

제 3장 거제농업의 회고와 농지 보존책

제7편 농 업(農業)

제1장 농업 지원기관

제1절 농업협동조합

1. 농협운동의 기원

1996년 8월 15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발행한 농협 35년사에 의하면, 1876년 2월 21일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게 되었고 1900년 전후 화폐제도 개혁 및 근대적 금융기관의 설립을 계기로 농협운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주계급보다 약한 농민계급에서 상부상조와 협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계(契), 향약(鄕約), 두레 등이 그것이고, 계는 신라시대 혹은 고려 말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계(洞契)와 상부상조하는 혼상계, 공동노동을 하는 농계(農契), 보계(洑契), 근린간에 친목계, 사교계, 갑원계 등이 있었고,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계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소나무를 식재하는 송계(松契), 수리계(水利契) 등이 있었다.

향약은 조선 중종 때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지방향교의 유지경영과 문묘의 제례에 관한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림의 교학단체였는데, 한일합방 이후 거의 소멸되었다.

그리고 두레는 신라시대부터 논농사의 직파재배에서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노동력의 협동조직으로 마을단위의 협동조직으로 정착하였으니, 모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합된 인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상호금융은 1905년부터 일본인 이주농민들이 조직하고, 1907년에 설립된 지방금융조합은 신용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 일제시대의 금융조합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 11월에 거제금융조합을 설립하고, 1912

제7편 농업

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금융조합을 위시하여 사업조합, 조선농회, 어기(漁企)조합 등의 관제조직으로 금융조합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하여 농촌금융을 전담·독점하였고, 전쟁 때에는 일제의 수탈기구 역할을 하여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2) 농 회

1920년 총독부는 조선의 각 군과 도(島)에 농회를 설치하고 각종 산업단체를 통합정리 하였는데, 활동이 부진하자 1925년 산미(産米) 증식계획으로 1926년 1월 조선농회령을 공포하고,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출발하여 농사의 지도·장려업무에 주력하였으나 정부의 하청기관의 역할로 면화, 잠견, 대마 등의 원료농산물의 생산독려와 수집매상, 공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이후 광복될 때까지의 전시체제 하에서는 농회가 행정기관을 등에 업고 비료 구매사업, 미곡창고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였고, 미곡, 생우(生牛), 낫그릇, 면화 등의 공출을 독려함으로써 농민의 수탈기관으로 전락하였고, 우시장을 관리 운영하였다.

농회는 광복 후 군정법령 제165호에 의해 농회는 농촌에 생활필수품의 배급, 원조비료의 취급, 고공품의 매입과 판매, 비료공장의 운영 등 농촌관련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기구개편으로 1949년에 비료, 고공품 기타 일체의 업무가 금융조합으로 이관되고, 활동은 사실상 청산단계에 들어가 해산되고 다만 농회창고만이 1명의 직원이 군청에 소속되어 관리하고 있었는데, 1957년 2월 14일 법률 제436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어 조선 농회령은 폐지되고 농업협동조합에 경제사업이 이관되었다.

3) 농업은행의 설립

1956년 3월 정부는 은행법을 준용하여 농업은행 설립을 결정하고 1956년 5월 1일 금융조합과 각도의 연합회를 모체로 하여 주식회사 농업은행을 설립하여, 거제지점이 종래의 금융조합 신용업무를 인수하였고, 1957년 2월 14일 법률 제436호 농업협동조합법과 별도로 법률 제437호로 농업은행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어 신용업무를 관장하였다.

4) 종합 농협의 발족

1961년 7월 29일 기존의 농협법과 농은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됨으로써 각도의 지부 8개, 군조합 140개, 군조합지소 383개, 그리고 원예와 축산 등의 특수조합 101개, 이동조합 21,042개소에 대한 조직을 완료하고 3단계 계통조

직을 갖추어 8월 15일 새로운 농협 출발을 하였다.

5) 이동조합의 육성

1961년 말 이동조합은 21,042개였는데, 1962년 말에는 21,518개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전체농민의 90% 이상에 달하는 222만7천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사업 내용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1964년부터는 농협 체질개선 운동과 이동조합 합병 4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합병하게 되었다.

6) 읍면단위조합으로 합병

1961년 8월 15일 종합농협이 발족한 이래, 1962년 말에는 이동조합이 2만1,518개로 늘어났으나 조합원수도 적고 자기자본 조성이 되지 않아,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모든 이동조합을 1,500개의 읍면단위조합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합병운동을 추진하였다. 1972년에는 읍면단위조합이 1,567개로 통합되어 상호금융과 생활물자 사업을 하계하고 비료, 농사자금, 공제, 정책구관 등의 군조합업무를 이관하여 사업기반의 확충을 도왔고, 연쇄점 등 종합시설 소요자금을 보조하고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영농부장에 대한 급여도 중앙회에서 보조하였다.

7) 계통조직의 2단계화

1980년 12월 30일 법률 제3300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축산지원업무를 축산협동조합에 이관하고, 시군농업협동조합을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로 1981년 1월 1일부터 개편 발족하였다.

읍면단위조합은 농협중앙회에 직접 가입하는 회원조합이 되고, 읍면단위 조합에서 중앙회지부의 2단계로 축소 개편되었다.

2.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1) 신용사업

(1) 상호금융업무 개발

1972년 8월 17일 신용협동조합법의 제정에 따라 농민들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 상

제7편 농업

호간에 호혜적인 상호금융으로 영농적금, 계식적금, 농어촌 1조 저축운동을 전개하였다.

(2) 신용보증제도의 도입

1972년 정부가 기금일부의 출연으로 농어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 그 채무의 상환을 제3자인 농협이 보증해 주는 제도로 1977년 현재 기금조성된 실적은 정부 11억원, 농협 20억원, 수협 1억원과 기금운영 수익금 11억원, 모두 43억원으로 신장되어 운영하고 있다.

(3) 우편저금의 인수

1976년 12월 22일에 우편저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1977년 3월 1일자로 우편저금을 농협에서 인수하였는데, 이는 체신부의 예금자가 1,277만명인데 저금액은 620억원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보았고,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 그리고 저축기관과의 과다경쟁의 해소를 위한 것이고, 체신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 우편저금의 폐지로 각급 학교의 어린이 저축이 사라졌다.

(4) 농협공제의 저변확대

1976년에 새생활, 진학, 단기저축, 종신보장, 장기화재 등 5종목의 공제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 1월 1일 법률 제2198호로 국민생명보험법이 폐지되어 체신부로부터 농협이 인수하였는데, 그 종목은 성인 보험을 위시하여 교육, 직장, 자립, 복지 등의 5종목에 119만4천건이고, 계약고는 924억5,300만원이었다.

1995년 말 현재는 새생활, 진학, 무궁화, 재해보상, 저축보장, 노후연금, 농작업상해, 효도건강, 한사랑암, 한울타리, 한아름, 노후적립과 기타 등 총 22종의 공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 식량증산 지원

1973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생산소득 증대와 식량의 자급자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유희지 콩 심기운동, 한해극복을 위한 양수기, 펌프, 호스 등의 자금지원과 농번기일손돕기운동, 통일계벼 재배용 죽재와 비닐공급 등으로 1975년에는 쌀 자급의 녹색혁명 달성에 이바지하였다.

(6) 농어촌 새마을운동 지원

1972년 봄부터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자, 근면·자조·협동의 기치아래 마을 가꾸기

의 환경사업을 먼저하고 자조협동의 복지운동에 농협이 참여하여 마을마다 협동회, 작목반, 부녀회 등을 내부조직하고 협동마을 육성에 중기자금을 중점 지원했다.

〈표 7-1-1〉

농어촌 새마을 구분별 현황

(1972. 10. 1 현재)

읍 면	계	기 초	자 조	자 립	자연부락
계	203	117	73	13	326
장 승 포	21	12	8	1	29
일 운	14	8	5	1	24
동 부	27	15	10	2	51
거 제	17	10	6	1	28
둔 덕	17	9	6	2	24
사 등	22	12	8	2	35
신 현	14	8	5	1	26
연 초	22	11	10	1	31
하 청	25	19	5	1	44
장 목	25	13	10	2	34

자료 : 내무부새마을총람(1972. 12. 30발행)

〈표 7-1-2〉

농어촌 새마을 구분별 변화

연 별	계	기 초	자 조	자 립	자 영	복 지	자연마을
1975	203	44	116	43	—	—	326
1976	203	—	113	90	—	—	326
1977	203	—	62	141	—	—	326
1978	203	—	62	141	—	—	326
1979	203	—	49	154	—	—	326
1980	208	—	—	205	3	—	326
1981	226	—	—	220	6	—	326
1982	225	—	—	210	15	—	325(△이목)
1983	225	—	—	202	23	—	325
1984	225	—	—	185	38	2	325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7)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으로 지붕, 담장, 변소, 장독대 등과 마을회관,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 등은 농어촌 기초환경사업으로 정비되었으며, 1978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농협자금을 융자 지원하였다.

(8) 농기계 및 자재공급 확대

1980년부터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라 농기계 보급이 증가하여, 농기계 구입 자금을 융자지원하였고, 1981년부터 P·P포대 40kg들이를 개발하여 벧짚가마니와 대체하여,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는데도 기여하였다.

2) 경제사업

(1) 생활물자사업 실시

농협은 농산물의 생산자 조합으로서,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농산물의 유리한 판매활동 그리고 농민들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읍면단위조합에 연쇄점을 개설토록 하였는데, 1979년 현재로 1,428개 점포가 개점하였고, 그 시설자금의 약 80%를 중앙회에서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지원하였다.

(2) 농산물 군납협정 체결

1969년 농협이 군납사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달걀을 납품하였고, 이어서 농민과의 계약재배로 청정채소, 감자 등을 선급 또는 선도금제도로 하였는데, 1978년 미군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일부 철수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3) 산지판매사업 기능확충

1970년대에 쌀 창고제를 도입하여 농협이 무료로 수탁 보관하고 선별, 등급화, 포장 개선 등으로 80%의 선도금을 지급하였고, 농민이 희망하는 시기에 싯가로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4) 유통시설의 확충

1961년 부산에 농산물공판장을 개설하였고, 이어서 서울, 광주, 대전, 대구의 순으로 공판장을 설치하였으며, 산지에는 집하장을 1979년까지 1,510개소로 확대하였고, 그

외에 중앙회 공판장 18개소, 양곡판매장 2,570개소, 축산물판매장 548개소 그리고 종합판매장 1,102개소로 확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에 싼값으로 기여하였다.

(5)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농촌 농기계와 한발대책의 양수기 등의 보급증가에 따라 유류소비의 급증으로 1980년부터 846개의 유류취급소를 설치하였으며, 1986년 3월부터 농업용 유류공급에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싼가의 50%정도의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다.

3. 농협의 조직과 사업실적

〈표 7-1-3〉 농업협동조합 조직

계	중 앙 회				회 원 조 합		
	계	시 지 부	지 점	출 장 소	계	본 조 합	지 소
21	5	1	3	1	16	11	5

〈표 7-1-4〉 농협의 농민조직 (1993)

새 마을 영 농 회				새마을부녀회	4-H회
영 농 회	작 목 반	공동작업반	농기계이용반		
278	43	137	9	277	84

자료 : 거제군지부 업무보고

〈표 7-1-5〉 농업협동조합 변화

(단위 : 명)

구 분 \ 연 별	1995	1980	1985	1990	1995	1997
조 합 수	12	13	14	12	12	12
조 합 원 수	12,275	11,371	13,174	11,912	13,129	13,316
직 원 수	152	187	256	261	384	404
남	107	128	161	163	241	244
여	45	59	95	98	143	160

제7편 농업

〈표 7-1-6〉

농업협동조합 사업별 실적

(단위 : 100만원)

구분 \ 연 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구 매	884	2,397	4,930	7,145	16,311	6,610
판 매	1,729	1,603	6,427	10,242	16,540	18,391
이 용	38	118	120	197	512	256
가 공					1,485	1,789
공 제	1,138	3,374	10,566	47,680	212,344	351,035

자료 : 농협중앙회 거제시 지부

〈표 7-1-7〉

기 타 영 농 회 현 황

새 마 을 영 농 회				새마을부녀회	4-H회
영 농 회	작 목 반	공동작업반	농기계이용반		
278	43	137	9	277	84

자료 : 거제군지부 업무보고

제2절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1. 연 혁

- 1961. 8. 15 농업은행 거제지점이 거제군농협으로 발족(거제면 소재)
- 1971. 3. 15 고현직원주재소 개점(거제군청 군금고 업무취급)(거제면 소재)
- 1973. 9. 8 하청지소 폐쇄
- 1976. 7. 30 거제군농협 본소건물 준공(거제면 소재)
- 1977. 6. 13 거제군농협 본소를 거제면에서 신현읍으로 이전
- 1977. 6. 13 고현직원주재소 폐쇄
- 1978. 3. 5 거제직원주재소 개설
- 1980. 11. 10 장승포지소 건물 준공(장승포동 소재)
- 1981. 1. 1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명칭변경
- 1984. 9. 13 장평 간이예금 취급소 개점(현 장평지점)

- 1987. 6. 23 군지부 외국환업무 개시
- 1989. 2. 27 장평간이예금취급소를 장평지점으로 승격
- 1989. 12. 27 장승포시청출장소 개점(장승포 시내)
- 1990. 12. 19 옥포지점 개점
- 1993. 1. 1 장승포지점 거제군지부에서 분리 시지부로 승격
- 1993. 5. 1 옥포지점에서 옥포출장소로 명칭 변경
- 1994. 11. 12 고현지점 개점
- 1995. 1. 1 시·군 통합으로 거제군지부에서 시지부로 장승포시지부에서 지점으로 명칭 변경
- 1995. 1. 1 고현지점에서 고현출장소로 명칭 변경
- 1998. 1. 1 고현, 옥포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
- 1996. 3. 15 거제시지부 사무소 증축(현사무소)
- 1999. 1. 31 장승포지점, 고현지점 폐쇄
- 2000. 7. 1 농협법 개혁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

2. 성 격

-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자주적인 생산자단체
- 농축산물 유통·가공사업과 교육·지원, 신용, 공제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
- 장·단기 농업금융 전담지원과 각종 농업분야 정책사업 대행
 - ※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1961년 7월 29일 법률 670호 공포)
 -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회원조합과 중앙회

- 지역조합 : 유통·가공, 교육·지원, 신용사업 등 종합사업 수행
 - 지역별로 농업인이 출자하여 조직한 개별 법인체
- 품목조합 :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기능 수행
 - 배, 사과, 화훼 등 품목중심 또는 한우 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인삼업 등 업종 중심으로 조직한 개별 법인체
- 중앙회 : 전국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한 연합체

3. 조직 및 인원

- 조합원 : 13,173명
 - 회원조합 : 22개소
 - 본 소 : 12개소
 - 지점, 지소 : 10개소
 - 영농회 : 227개
 - 부녀회 : 226개
 - 중앙회 : 4개소
 - 시지부(1개소)
 - 지점(2개소), 시청출장소(1개소)

1) 사무소 현황(중앙회, 회원조합)

명 칭	소 재 지	착공 및 준공	규 격	용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거제시지부(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81-12	1977. 6.13	1,286m ²	은행업무 및 국고대리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장평지점(현)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00	1984. 9.13	294.2m ²	외국환업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옥포지점(현)	거제시 옥포2동 524-27	1990.12.19	772.6m ²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거제시청출장소(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17	1995.12.23	128.9m ²	현 시청청사 입주일
연초농업협동조합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324	1993. 4. 7	2,694m ²	
동부농업협동조합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398	1970. 3.30	1,260m ²	
둔덕농업협동조합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64	1696. 2.20	737m ²	
장목농업협동조합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3	1971.10.31	1,243m ²	
장목농업협동조합 외포지소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81-1	1995. 5. 9	264m ²	
사등농업협동조합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594-1	1975. 4.15	555m ²	
하청농업협동조합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604-1	1973. 4. 9	1,510m ²	
하청농업협동조합 칠천지소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307-19	1980. 4.23	534m ²	
신현농업협동조합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49	1970. 3.26	1,202m ²	
신현농업협동조합 고현지점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08-2	1993. 1.19	407m ²	

명 칭	소 재 지	착공 및 준공	규 격	용 도
신현농업협동조합 서부지점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375-3	1983. 1. 19	520m ²	
신현농업협동조합 중곡지점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000-1	1997. 12. 5	807m ²	
일운농업협동조합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82-2	1975. 1. 1	1,234m ²	
남부농업협동조합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109-1			
거제농업협동조합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328			
장승포농업협동조합	거제시 옥포1동 429	1975. 1. 1	1,233m ²	
장승포농업협동조합 옥수동지소	거제시 능포동 662-8	1983. 2. 11	1,294m ²	
장승포농업협동조합 국산지소	거제시 옥포2동 1884	1992. 4. 22	901m ²	
장승포농업협동조합 장승포지소	거제시 장승포동 291-4	1995. 4. 27	718m ²	

2) 종사인원(현원)

(단위 : 명, %)

구 분	회 원 조 합	중 앙 회	계
종사인원(구성비)	423(84.4)	78(15.6)	50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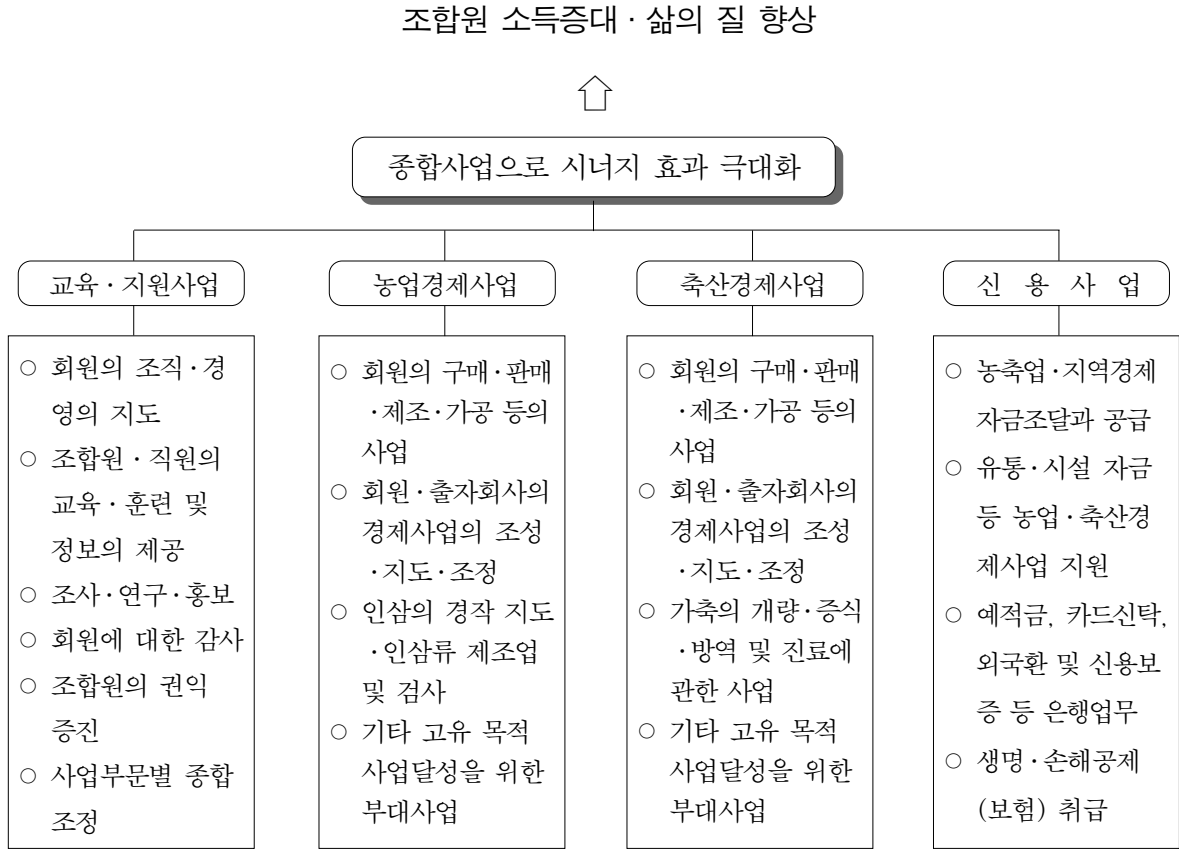
4. 주요 사업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 설 명	회 원 조 합	중 앙 회	합 계
산 지	산지유통센터	1	—	1
	저온저장고	8	—	8
	농축산물집하장	4	—	4
	농기계서비스센터	1	—	1
	가공공장	4	—	4
소 비 지	공판장	1	—	1
	소매판매장*	22	3	25
	축산물비축창고	1	—	1
	예식장	2	—	2
	장제사업소	5	—	5

* 소매판매장은 하나로클럽·마트 및 전문판매장

5. 주요 기능 및 사업



1) 선도적인 지역 금융기관 역할 제고

(1) 가계 및 기업자금, 농업정책자금대출 지원 확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앙 회	회 원 조 합	계
가계 자금대출	69,688	148,243	217,931
기업 자금대출	46,464	136,592	183,056
정책 자금대출	9,541	53,801	63,342
계	125,693	338,636	464,329

(2) 지역환경을 생각하는 금융기관

- 환경기금(늘푸른통장)의 조성 및 기부 : 167백만원(1999년도~2001년)

(3) 2001년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 총력 추진

(단위 : 백만원, %)

신 청 실 적			지 원 대 상 확 정			대 출 실 적		
건 수	금액(A)	비 율	건 수	금액(A)	비율(B/A)	건 수	금액(C)	비율(C/B)
6,887	91,533	100	5,498	80,580	88.03	2,745	41,216	51.14

(4) 담보력이 약한 농업인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지원 확대

2)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사업 확대

(1)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

-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판촉

(2) 농산물 수출사업 확대 추진

- 신선채소(가지, 오이) : 거제농협
- 농특산가공품(죽순·과일통조림, 유자액기스) : 하청농협
- 양돈수출 : 동부농협

(3) 성수기 영농지원 강화

-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확대 및 배달서비스 실시

(4) 구제역 및 소 해면상뇌증 재발 방지에 총력 경주

(5) 농협의 수확기 벼 매입 확대로 농가소득 지지

-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농협 매입량을 880만석 수준 까지 확대
- 쌀 소비 확대 및 소비지 양곡 판매 기능 강화

(6) 농업인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를 통한 농업인 복지증진 도모

- 농업인법률구조사업 실시
- 소비자보호사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권익 증진

(7)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

- 농촌지역 PC보내기 운동 전개

제7편 농 업

- 농촌지역 컴퓨터 이용능력 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8) 지역문화행사 발전·계승에 적극 참여

- 전통문화 행사인 ‘옥포대첩기념제전 옷놀이 대회’ 주관 : 2001. 6월
- 해변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 후원 : 2001. 7월
- 거제시민의 날 ‘줄다리기 대회’ 주관 : 2001. 10월

6. 역대 지부장 명단

대	성 명	재 직 기 간	재 직 년 월	비 고
1	성 준 경	1980. 8. 9 ~ 1983. 2. 14	2년 6개월	
2	백 남 훈	1983. 2. 14 ~ 1984. 8. 13	1년 8월	
3	곽 성 순	1984. 8. 13 ~ 1986. 8. 25	2년	
4	정 도 화	1986. 8. 25 ~ 1987. 2. 1	5개월	
5	진 익 경	1987. 2. 1 ~ 1988. 9. 15	1년 7월	
6	구 본 수	1988. 9. 15 ~ 1991. 3. 7	2년 5월	
7	장 지 강	1991. 3. 7 ~ 1992. 3. 31	1년	
8	김 명 보	1992. 3. 31 ~ 1994. 4. 22	2년	
9	옥 광 명	1994. 4.22 ~ 1996. 4. 24	2년	
10	김 양 곤	1996. 4.24 ~ 1997. 2. 24	10개월	
11	신 옥 식	1997. 2.24 ~ 1998. 4. 9	1년 2월	
12	강 기 묘	1998. 4. 9 ~ 2000. 7. 22	2년 3월	
13	김 철 수	2000. 7.22 ~ 현재	-	

제3절 농업기술센터

- 명 칭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 소재지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52번지
- 규 모

- 부지 71,410m² : 농업기술센터 5,042m², 농업과학관 65,984m², 병해충예찰탑 4,593m²
- 면적 : 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1,248m², 별관 2층 672m², 농업과학관 본관 820m², 관리사 148m², 시험재배유리온실(6동) 6,279m², 실증재배하우스(6동) 4,079m², 태양열 이용시설난방(1개소) 42톤

○ 연 혁

- 1906. 권업모범장 설립
- 1929. 농사시험장으로 개칭
- 1947. 12 농사개량원 설치, 도에 지방교도국
- 1950. 1 중앙농업기술원 설치, 도에 농업기술원, 군은 농사교도계 설치
- 1956. 3 도에 농업교도과, 시군에 농업교도소 설치
- 1957. 1 농사교도법 국회통과
- 1957. 2 농사교도법 공포(법률 제435호)
- 1957. 6 농사원(도 농사원, 시군 농사 교도소) 발족
- 1961. 10 도농사원은 도지사, 시군 농사교도소는 시장, 군수 산하로 각각 편입(법률 제742호)
- 1962. 3 농촌진흥법 공포(법률 제1,039호)
- 1962. 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 발족
- 1962. 4 거제군농촌지도소
- 1963. 10 시군농촌지도소 지소 설치(3~4개 읍면당 1개소)(장승포, 거제, 사등, 하청지소)
- 1965. 3 일선 농촌 지도활동 지침 제정(농림부 훈령 제130호)
- 1966. 12 임업직 농촌지도공무원 산림청으로 이관(대통령 제2,586호)
- 1968. 4 군지도소 직제중 주산지계 증설 4개계로 편제(각령 2,109호)
- 1968. 10 주재 정착 지도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쇄신책 시행
- 1968. 10 정착지도사 규정 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62호)
- 1972. 1 통일 쌀 증산 요원 특채
- 1975. 1 읍·면지소 설치(11개소)
- 1976. 11 농촌지도자회를 새마을 영농기술자회로 개편
- 1977. 군농촌지도소에 기술담당관제 신설
- 1977. 4 농촌지도인력전문특기화 규정 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228호)
- 1989. 1 장승포지소에서 장승포시농민상담소 승격
- 1989. 3 새마을 영농기술자회를 농촌지도자회로 개칭

제7편 농업

- 1989. 4 읍·면단위 지소를 군농촌지도소로 통합
- 1989. 4 군 농촌지도소 직제 변경 12개 계 증설
- 1989. 11 청사이전(신현읍 고현리 108-3 → 신현읍 고현리 552번지)
- 1990. 1 군 농촌지도소 직제 변경 2과 12계로 개정(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1995. 1 장승포시와 거제군통합 거제시로 명칭변경
- 1995. 1 거제군농촌지도소→거제시농촌지도소로 명칭변경
(장승포시농민상담소 통합)
- 1996~1999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거제면 서정리)
- 1997. 1 농촌지도직 지방직화
- 1998. 10 거제시농촌지도소를 → 거제시농업기술센터로 명칭변경
- 1998. 10 거제시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통합 3과 13계 → 2과 10담당
 - 과 : 농정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3개) → 농정과, 기술지원과(2개)
 - 계 : 농정기획, 농정, 농촌개발, 유통, 축정,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개선, 경영상담,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기술개발(13개 계) → 농정기획, 농촌개발, 유통, 축정, 생활개선, 경영상담, 식량작물, 소득작물, 농업자재, 개발센터(10개 담당)

〈표 7-1-8〉

역대 농촌지도소장 명단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재직년월	주 요 업 적
초대	윤병인	1958. 1. 20~1968. 9. 30	10년 8개월	농사교도소 발족
2대	이태영	1968. 10. 1~1971. 2. 10	2년 4개월	
3대	김재룡	1971. 2. 11~1973. 6. 30	2년 4개월	
4대	정완교	1973. 7. 1~1976. 3. 31	2년 9개월	
5대	김영돈	1976. 4. 1~1977. 1. 20	9개월	
6대	김성희	1977. 1. 21~1979. 12. 31	2년 11개월	병해충예찰소 설치
7대	박정욱	1980. 1. 1~1982. 11. 30	2년 11개월	
8대	정재묵	1982. 12. 1~1984. 4. 9	1년 4개월	
9대	이국추	1984. 4. 10~1986. 12. 30	3년 8개월	
10대	이상찬	1986. 12. 31~1990. 6. 30	3년 6개월	청사신축 이전
11대	최진의	1990. 7. 1~1993. 6. 30	3년	
12대	정재묵	1993. 7. 1~1995. 6. 30	2년	남전4-H장학회 설립
13대	이태순	1995. 7. 1~1996. 6. 30	1년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재 직년월	주 요 업 적
14대	김경연	1996. 7. 1~1998. 4. 1	1년 8개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15대	나무갑	1998. 4. 20~1998. 9. 23	5개월	
16대	류재연	1998. 9. 24~현재		

1.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변천

1) 개화기의 농사시험 연구사업

조선조 시대의 통치이념은 먼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축지 않게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이나 공업을 억제하였으며, 왕은 지방 수령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업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였으며, 특히 농사철에는 농민들이 농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잡무를 중지하고 권농에만 힘쓰도록 하였다. 권농조직으로는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에는 호조와 공조를 두어 호조에서는 농사지도와 농사의 풍흉을 진단하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어 굶지 않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공조에는 가축 사육 및 과일과 채소를 기르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권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전을 두어 임금이 스스로 농사를 지음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전념하게 하였다. 지방의 권농조직으로는 권농관과 잠실을 두어 농사일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때를 맞추어 씨뿌리고 김매는 것을 경국대전에 법조문으로 규정하여 강제적인 농사지도 사업을 실시하였다.

구 한말시대 정부기관 내에는 내무부안에 농무사를 두어 농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한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근대화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894년 중앙관제에 농공상부를 설치하여, 그 안에 농무국을 두고 농업, 임업, 목축, 잠업 등 농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농공상부에서는 1900년 서울에 잠업모범장을 설치하여 잠업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1906년에는 농무국 산하에 권업모범장을 두었고, 그 산하에는 평양, 대구, 군산, 목포에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에는 지방청 권농계에서 농업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권업모범장은 1907년 한국정부에 이양되었고 한국정부는 같은 해 3월 권업모범장 관제를 공포하였다. 농민들에게 종자와 종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도에 종묘장을 설치하여 종자의 생산보급 뿐만 아니라, 농사기술의 보급과 기술지도 기능까지 담당하게 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의 확대를 위하여 1929년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었으며, 평야지대가 많은 남부지방에 적합한 우량품종 육성과 보급을 위하여 전북 익산에 조선지장을 설치하였고, 1932년에는 각

제7편 농업

도에 있던 종묘장을 도농시험장으로 개편하여 전국적인 농사시험장 조직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중앙시험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농사시험연구기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농사시험장은 일제 말기인 1944년 농업시험장으로 개칭되었고, 농업시험장의 설립초기 인력은 소장과 기사, 서기 등을 합하여 51명 이었다.<표 7-1-9>

<표 7-1-9> 우리나라 농촌진흥조직의 역사적 변천

조 직	연 도	주 요 내 용
권 업 모 범 장	1906	통감부 설치
	1907	한국정부로 이관
	1910	조선통감부로 이관(한일합방)
농 사 시 험 장	1929	권업모범장 개편 - 도 종묘장을 도 농사시험장으로 개편 - 전국적인 농사시험 지도체계 확보
농 업 시 험 장	1944	농사시험장의 개칭
중앙농사시험장	1946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소속 이관
국립농사시험장	1947	미 군정청, 농업기술교육청
중앙농업기술원	1949	정부수립 이후 중앙농업기술원 직제 공포
농 사 원	1957	농사교도법
농 촌 진 흥 청	1962	농촌진흥청

권업모범장은 농사와 관련된 조사, 시험 및 종자, 종묘, 잡종, 종축의 배부와 지도사업을 담당하였다.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된 이후 농작물의 시험조사, 종묘의 생산배부, 토양의 시험조사와 토지개량, 비료의 시험조사, 병해충 시험조사, 종축과 잡종의 생산 배부를 위한 시험조사 등 농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일본에서 우량 벼품종을 도입하여 전국의 110여만 정보의 논에 보급함으로써 당시 연간 350만석의 증수를 가져왔고 그 외에도 목화와 대맥, 소맥, 고구마 등 우량품종을 선정하여 많이 보급하였다. 작물재배에 있어서도 발작물과 원예작물의 재배법 개량과 병해충 방제 및 토지에 맞는 적정 품종선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대표적 토양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한국의 기상과 지형에 맞는 농작물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에 농촌지도사업은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어서 단순히 강습, 기술자 양성, 현지 출장순회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농민지도 활동을 수행하였다.

도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된 종묘장에서는 농작물의 시범재배와 종묘의 보급, 가축의 사양과 번식, 농산물의 증산을 위한 시험조사와 농사의 감독, 지도 등을 주로 수행하여

우량 농산물의 품질개선과 보급 및 농사개량을 위한 시험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벼의 품종보급은 우량종자를 독농가에 배부하고 일반농민들에게 전시한 후 보급하였는데, 이러한 전시포는 1911년 전국에 462개소에 달하였으며, 도 종묘장에서는 견습생을 받아 중견 농민의 양성에도 많이 기여하였다.

2) 해방이후의 농사시험 연구와 지도사업

1945년 조국의 광복과 함께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벗어남에 따라 농업관련 기관들도 한국에 이양되었으나, 훈련된 기술자와 시설의 부족으로 농사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은 궤도에 오르지 못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농업은 또 한차례의 혼란과 격동기를 겪게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귀환하는 외국동포와 월남 난민들의 식생활 해결 및 일제 말기의 소작제에 시달린 농민들의 식량증산의욕을 돋우기 위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하였고, 1949년 3년 동안 농업증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증산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53년부터 1957년까지 농업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농업기술지도에 의한 재배법 개선, 농지개량에 의한 경작면적의 확장, 비료의 증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1946년 조선 총독부 산하의 중앙농사시험장은 미군정 소속의 중앙농사시험장으로 개칭되었으며, 1947년 미군정은 농업기술교육령을 공포하여 서울에 농사개량원을 설치하고, 산하에 농사교도국을 신설하고 중앙농사시험장을 국립농사시험장으로 개칭하여 농사개량원 산하에 편입하였으며, 각도에는 도농사 시험장과 지방교도국을 두었고, 군에는 농사교도소를 설치하였다. 농사시험장에는 종예과, 원예과, 기초연구과, 잠사과 및 경영기술과를 두어 시험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농사교도국에는 농사기술의 농민 보급을 담당하는 기술지도과와 지방지도사 및 청소년 교육훈련을 맡은 훈련과를 두었고, 각 도의 지방교도국에서 농업기술 지도보급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체계적인 연구지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듬 해인 1949년에는 농업기술원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농사개량원, 국립농사시험장, 농사교도국들은 폐지되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문교부 산하로 이관되었고, 시험부와 기술교도부로 구성된 중앙농업기술원이 발족되었으며, 각 도에 있는 도농시험장은 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되고, 농림부에 농촌지도국을 둠으로써 2원적인 농촌지도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해방이후 10년 동안은 한마디로 광복이후의 혼란기와 6.25동란 등으로 안정적인 시험연구 사업은 어려웠고, 주로 생산사업에 치중하였다. 다행히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연구지도 체제가 구축되어서 벼의 지역별 품종비교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당

시 방제법이 없었던 벼 잎 도열병 저항성 품종의 선발시험이 수행되었다. 벼 재배기술은 온상육묘와 보온묘판에 대한 기술검토 및 천수답 재배법과 잡초방제를 위한 시험이 주로 실시되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주요 농작물인 맥류와 콩, 수수, 고구마 및 면화에 대한 품종비교 및 종자처리, 파종시기 등 기존의 재배기술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원예분야는 무, 배추, 고추, 양파 등 기초채소류의 품종육성과 재배기술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축산분야에서는 돼지의 인공수정 연구가 1953년에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홀스타인과 한우의 퇴교잡 시험과 돼지, 말, 병아리에 대한 사육시험이 실시되었다. 잠업연구는 춘하잠 1대 잡종 사육연구와 뽕나무 우량품종 선발 및 재배법 시험이 수행되었고, 토양비료 연구는 산성토와 노후화답에 대한 토양개량 및 벼, 맥류, 목화, 고구마 등 당시의 주요한 농작물에 대한 시비시험이 수행되었다.

당시의 연구사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각종 작물의 품종개발체계 정비와 우량 품종의 선발 보급 및 일제시대에 실시된 전국 토양의 조사사업을 정비하여 토양 이용도 분류사업의 기초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특히, 1950년 우장춘 박사의 귀국으로 배추, 무 등 자가불화합성 잡종종자 생산법을 확립하고, 주요 채소 품종의 선발과 생산체계 확립으로 종자 구입용 외화를 절약하는데 기여하였고, 닭의 뉴캐슬병 예방약 제조성공과 돼지 콜레라 예방약 개량 생산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돼지 콜레라 방역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농사교도사업은 중앙에는 농사개량원 내에 농사교도국과 지방에 농사교도국 및 지방 교도소에서 실시되었으나, 이 기간의 농사교도사업은 정치적 혼란과 교도사업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으로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1950년 6.25동란 발발로 교도사업은 중단되었고 농사기술원에 명목상의 기구만 유지되었으나, 1952년 내무부와 국방부의 강력한 행정적인 압력하에 농사지도 요원 제도를 마련하여 농림부 장관 직속하에 농사보급회를, 지방에는 농사보급회 읍면지부를 두어 전국적으로 행정적 지도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들 지도요원은 농촌의 자기 농사개량을 실천하면서 부락의 농사개량, 협동조합, 육성, 청소년 지도를 받게 되었으나, 그 후 농사보급회가 대한농민회에 소속됨으로서 지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1956년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 농과학장인 H. Macy 박사가 2개월간에 걸쳐 우리나라 농촌을 현지 시찰하고 메이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것이 추후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농사시험 연구와 지도체제를 정착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메이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정부와 미국간에 농사교도 사업발전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후 1957년 농사교도법이 마련되어 공포됨에 따라 지금의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자리에 농사원이 설립되었다. 농사원의 조직은 시험국과 교도국을 두고 산하에 농업, 원예, 잠업, 임업, 축산시험장과 가축위생연구소를 두고 각 도원에는 도농사원을 두었으며, 시험연구사업

과 교도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167개 시군에는 농사교도소를 설치하였다. 1960년 당시 농사원 인력은 본원 99명, 산하시험장에 454명, 도원에 220명, 그리고 시군에 935명 등 총 1,508명에 달하였으며, 농사원은 1961년 농사교도법이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되면서 농사원 산하의 시험장, 연구소는 시험국장 밑의 부단위로 개편되었고, 지방기구는 도농사원과 시군 농사교도소를 각각 도지사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개편하게 되어 농사연구와 교도사업이 중앙과 또다시 지방사업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농사시험 연구사업은 종전까지 각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오던 것을 중앙의 연구소, 시험장과 각도의 농사원 시험국을 포함한 전국의 29개 시험연구기관이 농사원 산하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농업부흥을 위한 농사시험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강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농업기술의 과학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때 미국정부의 원조자금으로 서울대학교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간에 협정을 맺어 많은 교수들이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밟아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규모 유학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사원 시대의 주요 연구사업 성과로는 작물의 신품종육성, 재배법개선, 채소종자 생산체계의 정비, 새로운 잡종 육성, 종축 및 사양관리 방법의 개선 등이었다. 벼는 그당시 수성, 팔기, 남풍, 영광 등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 장려 품종으로 지정되었고, 밀과 면화, 고구마, 옥수수, 참깨 등 외국의 우수한 품종개발과 갱신이 가능하였다. 벼 재배법에 있어서는 심경다비 재배시험법을 통하여 수리안전답에서 현미 수량이 82% 증수되는 성적을 올리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이화명충 방제를 위하여 EPN, 다이아지논, 파라치온 농약을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식량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예연구 분야에서는 무, 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계통분리로 순도가 높은 계통을 육성하여 실용가치가 높은 원원종과 원종을 생산 공급하였고 무, 배추의 자가 불화합성 계통육성과 양파의 응불임성을 이용한 1대 잡종의 대량생산 방법을 확립하여 우리나라 채소 종자 생산의 근대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잠업은 잠종 원종의 교배육성을 통하여 원원종을 생산, 각도의 잠종장에 공급하고 수원상 1, 2, 3, 4호 등 우량 뽕나무를 육성 보급하였다. 외국으로부터 우량 축산계통을 도입, 교배하여 재래종에 대비하여 산란수가 20~30% 많은 1대 잡종 산란계를 육성하였고, 축우에 대한 요소급여 시험을 통하여 단백질 대용사료로 요소의 이용 가능성을 밝혔다. 한편, 당시 농사원은 임업시험도 관장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인 리기다 소나무를 개량한 리기다 테타 소나무를 육성 보급하고, 재질이 우수한 1대 잡종인 포프라의 육성에 성공하여 전국 각지에 조림하였다.

해방이후 국가 전반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말미암아 미진하였던 농사교도 사업은 농사원의 발족과 더불어 정부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는데, 농사원 설립 이후 2년 반 동안 교도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미화 2,482천 불, 한화 4,474백만원이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토양검정, 농업용수, 병해충 방제 등이었다. 그리고 비료효과 전시포 설치, 벼 병해충 방제, 토양관리기술 등 총 10개 분야 6,277명에 대한 자질향상에도 크게 힘을 기울였다.

농촌 청소년 육성과 계몽을 위하여 1947년에 도입된 4-H 조직은 농사원이 발족되면서 전국에 2,945개 구락부에 113,452명이었으나, 1959년에는 4,861개 구락부에 175,232명으로 확대되어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농사원은 농사교도 사업의 능률적인 수행과 일선지도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 라디오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하여 공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였고, 농사교도지(지금의 농사기술지)를 발간하여 농민들의 농업기술 향상에 힘썼다.

3) 농촌진흥청 시대의 농사시험 연구와 지도사업

(1) 농촌진흥청 발족과 기구의 변천

농사교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농사시험사업과 농사교도사업은 일원화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농업기술의 보급과 지도가 어렵고, 농촌현장에서의 혼선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지도기관의 일원화와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단일체제 속에서의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의 시행이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관장하여 오던 농사시험연구와 지도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62년 2월 17일 농촌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3월 농촌진흥청 직제가 공포되면서 농촌진흥청이 발족되었다. 농촌진흥청 발족당시 기구는 본청에 시험국, 지도국, 총무과와 소속기관으로는 11개 시험장, 연구소 및 9개 지장을 두었으며, 총인력은 781명이었다.

농촌진흥청은 1963년 보사부의 생약연구소를 이관받아 작물시험장에 편입하였고, 임업시험장의 육종과를 분리하여 임목육종연구소로 확대 신설하였으며, 도 농촌진흥원에는 채종장을 신설하였다. 작물시험장 이리지장을 수도육종연구소로, 다시 1965년 호남작물시험장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경남 밀양에 영남작물시험장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작물시험장에서 관장하던 연초재배시험업무는 전매청으로, 임업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는 1966년 발족된 산림청에 이관하였으며, 시험국의 농업경영과를 농업경영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축산시험장의 가축생산업무를 분리하여 종축장을 신설하였고, 동년에는 종축장, 농업경영연구소, 농공이용연구소들을 농림부로 이관하였다.

1970년에는 도농촌진흥원의 시험과와 지도과를 시험국과 지도국으로 확대하였고, 1973년에는 지도국장 소속의 기술진흥과를 기술보급국으로 독립시켜 기술보급을 강화

시켰으며 농림부 소속이던 농공이용연구소를 농업기술연구소로 개칭하였다. 1977년에는 작물시험장의 맥류연구담당관을 농업기술연구소로 확대 신설하고, 1979년에는 농공이용연구소를 농업기계화연구소로 개편하였다. 1981년에는 농약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소속의 국립 농업자재검사소의 농약분야 연구기능을 이관받아 농약연구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첨단기술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업기술연구소의 유전공학분야를 분리하여 농업유전공학연구소를 신설하고 원예시험장의 과수연구분야를 분리하여 과수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하부조직으로 나주배연구소, 대구사과연구소, 제주감귤연구소를 신설하였다.

1992년에는 지역농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진흥원 소속으로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를 시작하여, 전국에 32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설립하였다. 1994. 12월에는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는 시험국을 연구관리국으로 시도국과 기술보급국을 통합하여 기술보급국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농업연구분야의 기능별 연구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와 농림수산부연구소를 원예연구소로, 농림수산부소속의 국립 종축원을 축산시험장과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 잠업시험장에 유용곤충 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잠사곤충연구소로 개편, 농민교육과 농촌생활개선 기술보급을 담당하였던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은 농촌생활과학연구소로 개칭되었다.

호남 작물시험장, 영남작물시험장, 고랭지농업시험장, 제주시험장은 각각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고랭지농업시험장, 제주농업시험장으로 개칭되었고, 농림수산부소속의 종자공급소를 이관받았으며, 1996년에는 전문농업인력양성을 위한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1997년에는 지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도진흥원 소속의 인력 7,32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수의과학연구소를 농림부로 이관하였고, 잠사곤충연구소를 잠사곤충부로 축소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 편입하였으며, 종자공급소는 종자관리소로 개편되어 1998년 9월 현재 본청 4개 실국, 소속기관은 12개 기관의 규모로 발전되었으며, 인력은 총 2,393명(이 중 연구인력은 1,212명, 지방직 연구인력은 755명임)에 달하게 되었다.

(2) 농촌진흥사업 시책의 시대적 변화

해방과 6.25 전쟁의 격동기를 맞으면서 피폐된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추진되었는데, 당시 농업부문의 주요시책은 절대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증산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농업부문에는 제3차 농업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사업의 목표는

양곡의 증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농지의 확장과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제고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국정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시에 발족된 농촌진흥청에서는 시험연구사업 방향을 우선 가용한 재원과 시설, 경지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그동안 얻어진 결과를 재정리하여 증산에 필요한 우량종자, 종묘, 종축 및 잠종을 우선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경지를 늘리지 않고 농업생산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부중점 추진사업으로는 토지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토양검정과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한 지력향상기술, 경지확장을 위한 구릉지의 뽕나무 밭 및 과수원 활용기술과 산지이용, 간척지 및 개간지의 토지개량, 산림녹화용 수종육성과 종묘우량 묘목생산, 지대별 영농모형 설정, 가축방역을 위한 전염병 예방약 및 진단액 생산 등이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 농정방향은 농공병진정책이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량작물의 증산과 공업원료 작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부문에 대한 기술개발과 영농개선에 실용적인 시험연구강화를 중점시책으로 두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식량작물의 단위면적당 수량을 증가하기 위한 품종개발과 재배법 개선, 저위 생산지 개량 및 병해충 방지와 양송이 버섯개발, 가공용 원예작물 품종선발과 재배기술 확립, 누에품종 개량과 사료자원 개발, 가축방역을 위한 예방약 및 진단액개발, 농기구의 작업체계 및 가공·저장기술, 고랭지 영농기술, 제주도에 적합한 작목개발 등 9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에서는 농어촌경제의 획기적 개발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여, 그 동안 쌓아올린 성장여력을 농수산부문에 집중, 산업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기간 중 농정의 중점방향은 식량증산의 최우선추진, 농어민 소득증대, 유통구조개선과 수출증대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촌진흥사업 시책방향은 영농기술의 혁신, 농한기의 생산화, 농촌생활의 개선, 농촌지도자 육성, 산학협동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3차 계획이 착수된 1972년 세계적인 유류파동과 함께 식량공급의 부족으로 곡물가가 상승하여 식량자급을 위한 대책이 절박하게 요구되었으며, 이때 녹색혁명의 결과인 통일벼가 개발되었다. 이 기간 중 영농기술의 혁신으로 녹색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통일벼 단점개선, 밭작물 조숙 다수성 품종육성, 경지이용 확대, 야산개발, 완효성비료 개발, 인공유에 의한 한우비육 및 비육능력 향상, 목초개량 및 초지조성, 수출원예작물 개발, 동계비닐농법 개선, 오동나무 묘목 개선 등 10개의 대형과제들이 추진되었다. 1972년에는 5개년계획 세부사업 중의 하나인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개칭추진되어 소득증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의 생산증대, 수출품목의 집중개발, 주산단지 조성에 의한 지역농업 개발, 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어민 소득증대의 4대 기본목표에 따라 축산, 잠업, 특용작물, 양송이, 표고 등 21개 작목을 대상으로 집중개발 육성하였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의 농정목표는 지속적인 성장,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어민 소득증대,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유통근대화,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촌진흥 시책의 중점방향은 식량작물의 지속적 개발, 소득작물 기술의 전문화, 농업기계화 중심의 협동영농, 새마을 청소년 육성과 농촌영양개선, 농업산학협동과 국제기술협력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수도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육성, 옥수수·콩 신품종 육성, 유기작물 개발, 가축능력 개량, 조사료 증산이용, 가축질병 예방기술, 잠사증산 이용기술, 영농기계화 연구,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비옥도 시험사업, 농업공해조사연구, 농업경영개선 연구지도였다.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중 농업수산부분의 정책방향은 주곡의 자급달성, 생산기반의 확충, 농어가 소득원개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적기영농과 적지적량의 시비, 병해충 방제체계의 확립, 종합 농토배양, 유희농지 생산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서는 농정시책 방향을 식품소비 구조의 변화에 부응한 생산체제의 조정,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과 생산성향상,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능률의 제고,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업 인력의 정예화 첨단기술 개발,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였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 농촌진흥사업의 주요시책 목표는 선진농업 기술혁신이었으나, 6차 5개년 계획에서는 복지 농촌건설을 시책목표로 하였다. 당시의 농촌진흥사업 중점방향은 주곡의 지속적 안정생산, 농가 소득원의 확대개발 보급, 첨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농촌환경 및 농가생활 개선, 전문인력과 선도농가 육성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기계화 협동영농과 수입대체 및 소득작목 기술개발, 농가소득 배가를 위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진흥청이 발족된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농촌진흥사업 시책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중점시책방향의 적극적 지원과 추진을 중심으로 실행되었으며, 이때까지는 국내농업이 내수 및 수출농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89년 우리 나라가 GATT의 국제수지보호조항을 졸업하게 되어, 지금까지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던 농림수산물을 단계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243개 품목을 수입개방하고, 나머지 274개 품목은 1992~1997년까지 추가로 개방함에 따라, 마야호로 우리 농업은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술의 국제화 시대를 맞게 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989년 농축산물 수입개방 품목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65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 상위, 대등, 열위, 취약작목으로 구분하고, 수입농축산물과의 경쟁력이 상위인 사과, 배, 감귤, 양돈 등 13개 작목에 대하여는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목별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농업과학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여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년 농촌진흥청에서는 1991년 수립된 농업과학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을 수정 보완하게 되었다. 연구개발 목표는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중기목표로 하고, 나아가서 우리농업을 첨단생물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사업방향으로 국민식량의 안전공급을 위한 생산기술 지속개발, 환경조화형 농업기술개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수출지향 전략작목의 집중개발, 생명공학기술의 조기 실용화연구, 주변과학기술의 농업접목 기술개발, 첨단생물산업화 연구개발, 통일대비 북한농업공여 기술개발 등 8개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대상 69개 작목 중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잠재력이 있는 작목은 수출지향전략작목, 농가소득에 기여도가 크거나 수입 농산물의 대체가 가능한 작목은 내수지향전략작목,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한 작목은 기초작목, 국제경쟁력이 미약하고 교역량이 미미하여,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확보가 어려운 작목은 기초작목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4) 농과계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변천

(1) 농과계 대학

국내 최초 농업관련 교육기관은 1876년 부산 동래에 설립된 동래무예학교로서 당시에는 6개 과목중에서 공통적으로 농업과 잡업을 실업과목으로서 교육하였고, 1883년 덕원부사가 읍민들의 농업교육 실시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 원산학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농업교육에 효시가 되었다. 이후 1895년 고종황제가 농업교육을 통한 식량생산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교서를 반포하였고, 1899년 중학교 관제와 상공학교 관제가 공포되면서 상공학교가 설립되었다. 1904년 상공학교는 농상공학교로 개칭되었고, 1906년에 농상공학교의 농과는 수원농림학교로, 공과는 경성공업전습소로, 상과는 선린상업학교로 각각 분리되었으며, 수원농림학교는 지금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와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농업관련 국공립 및 사립대학이 다수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내에는 총 47개의 농축산관련 단과대학과 농학부가 설립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국립대학 22, 사립대학 25) 우리 나라의 농업연구와 수많은 농업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하여 지금의 기술농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 왔다. 국내 농업관련 대학교수의 인력은 1997년 6월 현재 전국에 1,486명에 달하고 있으며, 연구분야(과)는 식량자원에서부터 유전공학분야까지 50여 개에 달하고 있어서 농업연구는 식량생산차원을 넘어서 생명공학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농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 동안 농업관련 대학들은 한국과학재단, 교육부 및 그 산하의 학술진흥재단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농업행정기관과의 공동연구/산학협동을 통하여 대학의 농업분야 기초기술을 농촌현장과 연계시켜 선진농업을 육성하는데에 기여하여 왔다.

농업행정기관과의 용역 또는 공동연구사업으로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공모하는 과제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행정기관과 농과계 대학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1972년부터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농촌현장에 접목하고자, 전국에 농과대학과의 용역연구를 추진하여 정부기관과 대학간의 산학협동사업을 활성화하여 왔고, 개발된 기술은 농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특히, 1994년부터 10년 동안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특세사업인 첨단농업 기술개발사업과 농촌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에 연간 300여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어, 국내 농과계 대학교수들의 적극적인 현장연구 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대학교수와 농업인이 농촌 생산현장에서 공동연구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 농업기술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실용화 연구가 적극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2)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농업관련 출연연구기관으로는 농림부 산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67년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로 발족되었다가,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농림부 소속의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주요 임무는 농림수산경제와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사업과 국내 농업발전을 위한 농정방향 설정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1987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육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88년 한국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수산 식품의 저장, 유통, 가공분야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김치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한국김치의 품질향상과 농산물 중 가장 주요 수출품목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제5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명공학분야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 마련

되어, 이 분야가 앞으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분야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과기부 산하에 출연연구기관으로 1985년 유전공학연구원이 설립되었고, 1995년 생명공학연구소로 개칭되었다. 농업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생명공학융합연구기관으로 Biotech 2000 연구사업 등 유전공학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소의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공공분야 등의 국가적 핵심하에 수행을 통한 생명공학 기반구축 및 미래원천기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명공학기반구축 및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조사는 세포변이 분자생물학적 연구, 단백질 구조, 분자적 인식기작, 동·식물세포공학기초기술개발, 생물대사기능조절물질 탐색, 산업미생물 분자유종 및 전환기술 개발, 그리고 세포변이 분자생물학적 연구 및 간암발생의 활성화 억제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공학연구소는 설립초기부터 학술지 게재 및 논문발표가 꾸준히 증가되면서, 1996년도 학술지 게재 논문은 총 305건으로 연구소 설립초기보다 연구정착기에 들어서 서서히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외 논문 발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연구활동의 성공사례로서 감자의 기내소괴경 형성 기술을 이용한 감자무병 우량종서의 급속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종래의 천연씨감자를 완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무병·우량 인공씨 감자를 유정공학적 기법으로 배양실내에서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양기술로 천연씨감자에 비해 병이 없으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장 및 수송이 간편하고, 시설내에서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지녔다. 또한 항균, 항바이러스성 및 면역증강효과가 뛰어난 인체 락토페린의 유전자를 젓소의 수정란에 미세주입하여, 우유 중에서 사람 락토페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젓소를 개발하였다. 유전자 재조합 및 수정란 미세조작 등 유전자 핵심기술의 결정체인 최첨단 동물 생명공학기술을 국내 기술진에 의해 자체 확립하였고, 향후 산업적 응용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비슷한 예로, 서울대학교 수의대 등에서는 체세포를 활용하는 cloning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산업화되면 국내 축산업, 유가공업, 식품, 의약품 산업 등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은행사업에서는 물질특허개발, WTO 출범, OECD 가입에 따른 국내 생물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국가생물자원 및 정보자원 보유 능력확보와 각종 유용 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개발을 통한 국내 외핵균주, 특허균주, 산업미생물균주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유전자원 도입, 고유 유전자원 탐색 확보 보존 및 계통분류 및 동정사업,

특허미생물 수탁관리사업, 계놈연구지원과 기술협력사업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1996년 한해 동안 균주수탁 117건, 균주분양 2,515주, 생물정보 네트워크 확대 구축의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유용생물자원사업을 통하여 국제공인 실험동물의 계통유지 보존기관으로서 다양한 실험동물의 계통유지 보전과 품질검정, 동물자원 및 곤충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6년 한해동안 실험동물 보존 101계통, 종양주 249주, 곤충자원 8종의 확보와 실험동물 품질검정 13개기관, 983마리의 동정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유전자원은 농진청의 유전자은행사업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유전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농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수행하던 연초재배 연구업무가 전매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978년부터 전매청 산하의 전매연구소가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연초연구소와 고려인삼연구소들로 개편되어 각각 연초연구와 인삼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1981년 이들 연구소로 통합되어 인삼과 연초의 육종, 재배, 가공기술개발과 보급을 전담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나라 최초의 연초 품종은 물론, TMV저항성 연초품종들로 육성하고 있다.

제2장 농산물의 생산

거제는 서기전 삼한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산에 올라 짐승을 사냥하거나 산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서 먹었다.

점차로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식생활을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렀으며, 섬유작물을 재배하여 옷감으로 하였고, 산림을 육림하여 집을 짓고 살아왔으니, 이 모두가 인간의 역사가 되었다.

선사시대를 지나고 사람들은 수도작, 전작 및 채소, 특용작물 과수 그리고 옷감으로 누에치기, 양잠, 삼, 목화를 재배하면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를 차차로 해결해 나갔다. 가축으로 소, 말, 염소, 닭 등을 사육함으로써 짐승 사냥에서 기르는 축산으로 변천하였는데,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경사회의 근본이 농경자는 하늘아래 가장 큰 존재라 하였다. 현재의 농산물은 옛날의 양 위주가 아니며, 다른 공산품처럼 비교 우위를 내세워서 싼 것을 사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한 발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농산물은 5%만 과잉 생산되면 값이 반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5%가 흉작으로 감소되면 값이 두배로 뛰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 거제의 산업별 종사자의 변천에 따라 사서 먹는 산업 인구가 늘어났다.

〈표 7-2-1〉 산업별 종사자의 변천

연 별	총인구	산 업 인 구	농어업	광공업	공 익	상 업	공무업	봉사업	기 타
1957	105,728	42,798	37,637	283	105	794	511	509	2,959
1997	164,652	89,280	31,535	30,522	1,887	6,640	4,546	11,878	2,272
비율(%)	155.7	208.6	83.8	108배	18배	836.3	890.0	22.7배	76.8

자료 : 군세일람, 거제시통계연보

제1절 식 럡 작 물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식량작물은 그 종류가 88종이나 되며, 우리나라 농경지에서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벼과에 딸린 화곡류(禾穀類), 콩과의 두류, 감저(甘藷)의 서류(薯類)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화곡류 : 수도(水稻), 육도(陸稻), 보리, 밀, 귀리, 호밀, 조, 피, 기장, 수수, 옥수수, 메밀
- ② 두 류 : 콩, 팥, 녹두, 강남콩, 완두, 땅콩
- ③ 서 류 : 고구마, 감자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쌀과 보리를 가장 중요시하였는데, 수도후작으로 월동작물인 보리를 재배하는 작부체제로 논농사가 전형이었고, 밭에는 콩의 후작으로 역시 보리를 이모작 하였다. 그러나 거제지방의 밭에는 태풍 피해를 크게 받지 않는 고구마를 주작으로 하고, 콩, 옥수수, 수수, 조, 팥, 녹두 등을 간작 또는 혼작으로 재배하였고, 겨울작물로 보리와 밀을 재배하였다.

두류에는 콩, 팥, 녹두 등 하곡으로 강남콩, 완두 등은 이른 봄에 밭두렁이나 채전에 자가 소비용으로 재배하였는데, 지금은 별미로 생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1970년대 이후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향상은 식량소비의 양상이 변화하게 되었으니, 생산체계의 혁신을 가져왔고, 정부의 식량증산 시책에 따라 쌀의 단위 면적당 수량증가를 위하여 통일계 벼를 개발하고 보은묘판 설치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고, 보리 배증산 운동에 따라 보리광과, 보리이식 재배로 수량증대를 꾀하고, 증산운동을 전개하여 유사 이래 주곡의 자급자족하는 녹색혁명을 이룩했다. 고구마는 1980년대 자율재배의 과정을 거쳐오기까지는 쌀과 보리 다음의 주식 작물이었는데, 사료작물 또는 주정원료 작물로 전락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경사진 밭의 주작물이었으며, 1960년대 초반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연례행사같이 다가오던 보릿고개라는 춘궁기에는 물론이고, 흉년이 든 해에는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었다. 이제는 간식용의 자리마저 가공식품들에 의해 탈취당하고, 겨우 주정이나 전분원료의 일부로 공급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주정과 전분원료의 수입량이 확대되면서 노동력 감소와 수지도 맞지 않아 휴경지가 증가되고 있으며, 거기에 식량소비 성향의 고급화로 양질의 식량을 요구하고 있으니, 벼농사인 통일벼와 밭농사의 고구마는 같은 작물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품질 좋은 일반계 벼품종이 재배되고, 채소의 연중생산 기술의 발달과 농업생산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식량작물 재배에 비하여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백색혁명으로 과일채소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1. 벼농사

제7편 농업

〈표 7-2-2〉 쌀 연간 1인당 소비량의 변천

연 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소 비 량	112.9	110.2	108.3	106.5	104.9	102.4

자료 : 농림수산통계연보

〈표 7-2-3〉 거제시 미곡생산량 변화

(단위 : 면적ha, 단수kg, 생산량m/t)

연 별	1966	1970	1975	1979	1985	1990	1995	1996	1997
면 적	4,776	4,577	4,621	4,360	3,985	3,900	3,062	3,079	2,586
단 수	329	319	307	336	380	415	430	522	483
생 산 량	15,716	14,600	14,169	14,600	15,143	16,185	13,167	16,072	12,502

〈표 7-2-4〉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

(단위 : 천ha, 천M/T)

연 별	재 배 면 적 (천, ha)				쌀 소 비 량 (천, ha)			
	세 계	한 국	경 남	거 제	세 계	한 국	경 남	거 제
1992	148,424	1,156.9	135.4	3.6	517,913	5,330.8	572.8	16.0
1993	145,335	1,135.8	132.4	3.7	524,804	4,749.6	476.8	13.4
1994	145,772	1,102.6	126.8	3.4	537,338	5,059.8	550.3	13.6
1995	149,151	1,055.9	118.4	3.1	550,193	4,695.0	525.6	13.2
1996	148,400	1,050.0	114.6	3.1	554,900	5,323.0	566.3	16.1
1997	-	1,052.0	113.7	2.6	-	5,450.0	551.4	12.5

자료 : '95 FAO 농업생산연감 농수부작물통계, 거제시통계연보

거제의 미곡 쌀 생산량은 1966년 4,776ha에서 15,716톤을 생산하였는데, 1997년에는 재배면적이 2,586ha로 54.6%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단위생산량의 증가로 12,502톤을 생산하였는데, 거제의 쌀 자급율은 74.2%로 육지에서 많은 쌀을 공급받고 있다.

거제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로 선사시대 유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데, 산달도와 거제남산 등의 패총을 위시하여 청곡, 학산, 소동, 다공 등지의 많은 고인돌, 그리고 독로국이 등장하여 천신제를 지내던 소도터인 사등의 망치산을 들 수 있고, 벼농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작물로 쌀을 생산하여 식량의 주곡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그 농경은 논을 개간하여 직파를 하였는데, 조선조 중종 때 싹튼 실학의 영향으로 농자가 천하지대본으로 가장 황금기에 달하였고, 이때 중종 25년(1530)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엮었는데, 그 토산편에 벼의 이앙법을 수록하였다.

일제시대 36년간에는 일본인들의 착취농업의 수단으로 수량이 낮은 재래종은 없어지고, 일본에서 도입된 곡량도, 은방주 등이 해방될 때까지 재배되다가 해방 후 농립 6호, 팔경, 농립 29호 등이 일본에서 다시 들어와 1960년 중반까지 재배되었다.

이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품종은 농립 6호인 농육이라는 품종이었고, 이후 아까바레라는 추정벼를 주 품종으로 재배하였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육종기술이 발달하여 진흥벼와 함께 주재배 품종으로 등장하였다.

1969년 후반에 기적의 벼씨라는 1R667통일벼를 우리의 육종팀에 의해 개발되어, 1970년대 초반부터 보급하기에 이르렀고, 1974년부터 강력한 행정력과 지도력으로 조곡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고자 「식량은 국력이다.」는 구호아래 통일벼 확대재배는 서리가 오기 전에 결실하도록 일찍 심기 위해 비닐을 이용한 보온묘판 설치 지도에 임하였고, 1975년을 절정으로 재배하여 녹색혁명을 이룩하였는데, 이때에 필자 제익근은 고성군 산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낮에는 들판에서 밤에는 마을회관에서 지도·계몽하고 독려를 하였다. 통일벼의 성공으로 5천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곡의 자급자족을 이룩하였으니,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일이었다. 녹색혁명 성취라는 거룩한 업적을 남기기까지는 기관장인 시장·군수나 농산관계자 그리고 농촌지도공무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없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밥맛이 없고 하니,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등 시행착오와 애로도 많았다.

1978년에는 노풍 품종의 목도열병 파동이 있는 후, 1980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냉해로 벼가 잘 익지 않은 불임현상 등은 우리 농민에게 잊지 못할 큰 재앙이었으니, 3년 연속된 흉년으로 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앞으로의 벼농사는 우루과이 협상에 따른 수입자유화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의 쌀 시장은 완전 개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는 통일계통의 벼보다는 미질이 좋은 일반계 품종인 동진벼, 화성벼, 일미벼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우리의 주곡인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쌀의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쌀 전업농가의 육성과 경지정리의 단위면적을 합리화하고 수리시설의 확충과 새 영농기계의 보급 등 다방면의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농특세를

제7편 농업

신설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거제의 벼농사는 출수기 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해 도복피해가 심하고, 바다로 싸여있는 섬지역이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타고 날아오는 흰등멸구, 벼멸구, 흑명나방 등에 의한 피해가 심하다.

그리고, 동진벼 재배 편중과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이 덜 되고 단위당 포기수 확보가 적으며, 토양개량제 시용 회피로 병해충 증가와 숙기저온 및 태풍에 따른 도복 등의 원인으로 거제는 수량이 적으며, 밤과 낮의 온도차가 적어 소모도장 효과가 큰 것이 최대의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1997년에는 유기농법으로 연초면 명동리 윤병운이 중심이 되어, 메뚜기쌀과 오리쌀, 그리고 유기농 채소생산을 10ha에서 재배하였으며, 거제면 선창, 사등면 두동, 장목면 장동 등지에서 3ha에 아이가모 오리를 이용한 환경농업을 실시하여, 거제특산의 오리쌀을 생산하고 있다.

〈표 7-2-5〉 전국의 10a당 쌀 생산 소득분석 (단위 : kg, 원)

연 별	수 량	단 가	조수입	경영비	소득액	소득율	노동시간
1992	461	1,377	651,148	178,222	472,926	72.6	45.2
1993	418	1,439	620,188	188,177	438,011	70.6	40.8
1994	459	1,480	679,450	188,522	490,928	72.3	37.2
1995	445	1,608	736,870	197,947	538,927	73.1	34.7
1996	507	1,755	890,253	217,294	672,959	75.6	32.8
1997	518	1,715	880,594	218,594	670,000	75.4	31.1

자료 : 농촌진흥청 농수산물표준소득

〈표 7-2-6〉 1995년 쌀 생산비 조사표(10a당) (단위 : 원)

농 가 규 모 별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평 균
★ 직접 생산비	244,577	265,029	275,251	261,619
A. 영 농 비	78,769	90,019	56,977	75,255
종 묘 비	5,101	5,539	5,619	5,420
비 료 비	20,242	13,475	27,793	20,503
농 약 비	17,937	17,578	17,146	17,554

농 가 규 모 별	대 규 모	중 규 모	소 규 모	평 균
제 재 료 비	6,128	5,219	396.9	409,932
농 구 비	24,191	5,332	-	391.5
영 농 시 설 비	416	42,876	5,390	3,324
B. 노 력 비	142,341	-	1,029	5,616
자 가	137,951	145,754	-	22,699
고 용	4,390	138,267	141,925	139
C. 위 탁 영 농 비	23,467	7,487	114,655	143,340
★ 간 접 비	184,646	29,256	27,270	130,291
A. 토 지 용 역 비	170,000	149,817	73,349	13,049
자 가	170,000	130,000	134,681	43,024
B. 자 본 용 역 비	14,646	130,000	130,000	156,381
생 산 비 총 계	429,223	19,817	130,000	143,333
10a 당 생 산 량(kg)	518.4	414,846	4,681	143,333

자료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2. 보리 농사

맥류 중 대표적인 월동작물인 보리는, 쌀과 함께 주곡의 식량작물로 4~5세기에 재배하였는데, 한발이 극심하여 쌀 농사가 흉년이 들면 보리로 연명하였고, 5월의 입하절후를 지나면 풋보리를 수확하여 보릿고개를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거제는 따뜻한 지역으로 겉보리 보다 알곡의 쌀보리를 많이 재배하였으며, 소맥의 밀은 자가소비 정도만 재배하고, 호맥은 사료용으로 산간의 박토를 개간하여 심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없어진 것으로 안다.

일제시대 일본이 쌀을 수탈하기 위하여 그 식량보충을 위한 보리농사를 권장하게 되자, 밭보리에서 논보리를 경작하였는데, 벼포기의 흙덩어리를 깨어야 하고 비료의 부족으로 확대재배가 어려웠으니 농민들은 인분으로 대신하였고, 월동하여 자생하는 독새풀을 메기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1960년대 말에 식량자급을 위한 보리 배증산 운동으로 이식 또는 광파재배 등으로 증산에 성공하였고, 둔덕면 거림리 신종락은 10a에서 682kg을 생산하여, 전국의 보리다수확 왕으로 선정되었다.

제7편 농업

1970년대의 통일벼 재배로 쌀 자급자족이 성공되자, 1980년대에 들어와 보리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 논에는 벼 1모작이 많았는데, 그 후 맥주보리를 권장하여 이를 계약 재배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찰보리 재배가 대단위로 재배되어 일반 보리보다 1.5배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재배하여 유통업체에 납품하기도 하며, 인기품종으로 건강식의 보리밥, 보리찰떡, 보리찰국수, 현미쌀과 혼식 등이 많아 보리밥집이 생겼다.

〈표 7-2-7〉

맥류 재배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 분		연 별							
		1962	1966	1970	1975	1985	1990	1995	1997
계	면 적	3,999	5,120	4,938	4,004	1,950	2,114	184	158
	10 a 당	161	193	271	273	274	285	284	297
	생 산 량	6,488	9,897	12,399	10,926	5,340	6,033	523	470
대 맥 (늘보리)	면 적	-	5	21	8	900	980	46	12
	10 a 당	-	89	204	213	296	285	300	302
	생 산 량	-	5	43	16	2,664	2,803	138	40
과 맥 (쌀보리)	면 적	3,559	4,780	4,553	3,753	1,050	1,134	138	146
	10 a 당	160	196	251	268	254	285	279	295
	생 산 량	5,693	9,373	11,460	10,053	2,676	3,230	385	430
호 맥 소 맥	면 적	440	335	364	243	-	-	-	-
	10 a 당	180	155	246	353	-	-	-	-
	생 산 량	795	519	896	857	-	-	-	-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표 7-2-8〉

보리 1인당 소비량 변화

(단위 : kg)

연 별	198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소 비 량	13.9	1.5	1.7	1.7	1.5	1.6	1.7

자료 : 농수산물 생산유통정보

〈표 7-2-9〉

하곡 보리 수매 실적

(단위 : M/T)

구 분 \ 연 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 계		1,019	804	974	460	537	183.7	189.0
계	1 등	627	674	570	23.3	339.5	61.3	66.2
	2 등	349	125	332	20.3	179.5	103.7	104.5
	3 등	43	5	72	4	18.0	18.7	18.3
겉 보 리 계		147	58	41	5	5	0.8	6.6
	1 등	122	51	40	4	4.5	0.6	6.4
	2 등	22	7	1	1	0.5	0.2	0.2
	3 등	3	-	-	-	-	-	-
쌀 보 리 계		872	746	529	274	352	124	128.6
	1 등	505	623	431	189	301	56.3	55.4
	2 등	327	118	95	79	50	59.1	59.3
	3 등	40	5	3	6	1	8.6	8.9
맥 주 보 리		-	-	-	181	180	58.9	58.8
	1 등	-	-	-	40	34	4.4	4.4
	2 등	-	-	-	123	129	44.4	45.0
	3 등	-	-	-	18	17	10.9	9.4

자료 : 거제시 통계연보

3. 잡곡재배

거제의 잡곡재배 면적과 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잡곡의 품종으로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이 있는데, 1986년까지는 200ha를 넘게 재배하였으나, 점차 농촌인구의 도시 진출에 따라 산록에 있는 밭들은 산짐승의 피해와 노동력 부족으로 후경 상태에 들어가 1997년 현재 밭 휴경지는 93.4ha로 조사되었으며, 억새나 소나무가 자생하는 등 폐전이 되고 있으며, 평야에 있는 밭에는 자가소비 정도로 재배하며 조생종의 옥수수는 여름철 관광휴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작하고, 잡곡의 83%를 점하고 있다.

1) 조

우리나라에서의 조 재배는 유사 이래의 작물일 것으로 전래되고 있으며, 신라 문무왕 8년(668)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고구려를 공격한 후에 논공행상으로 조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거제의 조 재배는 일제시대 공출대상 곡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콩밭의 몇 이랑을 간작으로 조와 수수를 재배하여 1975년까지 100ha 내외를 유지하였는데, 그 후 급격히 감소되어 1990년대에는 3ha 내외를 재배하고 있어, 조나 수수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좁쌀의 주성분은 당질이지만, 단백질과 유질도 손색이 없으며, 비타민도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간식용으로 떡, 엿, 죽, 그리고 오크밥에 넣어먹는 정도에서 이제는 생산량의 격감으로 관상조류의 모이로 이용하거나 잡곡밥에 넣어 먹고 있다.

2) 수수

우리나라는 함경도 회령읍 오동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수수가 발견되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지만, 너무 옛날이라 확실치 않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거쳐 들어와 상당한 옛날부터 재배된 것 같다. 수수 재배는 농가의 보조식량이나 가축의 사료를 목적으로 조와 함께 콩밭의 간작으로 심었으며 이는 다른 작물의 방풍 역할도 하였고, 수수빻자루를 만들어 가정용이나 장날에 내다 팔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시장에 수수빻자루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재배면적은 1966년에 39.4ha로 집계되었으나, 점차로 줄어서 1996년에는 1~2ha 정도만 간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수는 환경적응력이 강하여 마른 땅이나 척박한 땅, 그리고 사질토뿐만 아니라 저습지에도 적응하는 혼잡작물이고, 오크밥에 거제는 쌀, 보리, 콩, 조, 수수를 넣었다.

3) 옥수수

거제에서는 옥수수를 강냉이라 하며, 고려 때 원나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설과, 소야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17세기 명나라의 말기 승정 때에 전래되었다는 설이 있어 옥수수 재배는, 조선조의 인조 6년(1628) 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옥수수는 강원도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식용이나 전분원료 또는 가축의 사료용으로 오래 전부터 경작해 왔으며, 마른 옥수수는 박상으로 튀겨 시판되고 있다.

〈표 7-2-10〉

잡곡 1인당 연간소비량

(단위 : kg)

구분 \ 연 별	1991	1993	1994	1995	1996	1997
조	0.05	0.04	0.04	0.04	-	-
메 밀	0.14	0.25	0.11	0.16	-	-
옥수수	-	-	-	3.3	3.6	4.3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표 7-2-11〉

거제 잡곡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분 \ 연 별	1962	1970	1975	1985	1990	1995	1997	
계	면 적	394.2	263.1	277.0	239.0	73.0	107.0	93.5
	10a당	34.3	98.1	77.8	91.2	125.9	300.9	125.0
	생산량	135.2	246.8	215.4	218.0	117.1	322.0	117.1
조	면 적	179.4	85.3	134.0	3.0	1.0	3.2	0.6
	10a당	27.7	117.4	60.0	67.0	75.0	88.0	123.0
	생산량	49.7	66.0	80.7	4.0	0.7	2.8	3.2
수수	면 적	29.7	26.8	116.0	10.0	2.0	0.2	1.0
	10a당	36.7	91.7	102.0	70.0	95.0	100	100
	생산량	10.9	24.6	118.4	7.0	1.9	0.2	1.0
옥수수	면 적	123.7	150.4	116.0	179.0	65.0	89.0	78.0
	10a당	40.8	99.6	102.0	112.0	140.0	347.0	128.0
	생산량	50.5	149.9	118.4	200.0	91.0	308.5	100.2
기 타	면 적	61.4	6.0	6.0	47.0	25.0	14.1	17.9
	10a당	39.3	105.0	53.0	14.9	22.0	74.5	70.1
	생산량	24.1	6.3	3.2	7.0	5.5	10.5	12.7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4. 두류 재배

거제는 콩, 팥, 녹두, 강남콩 등은 여름작물이며, 완두콩은 보리논의 앞두렁에 겨울작물로 재배하였으며, 거제는 점질 토질로 땅콩은 옛날부터 재배하지 않았다.

1) 콩(大豆)

거제는 콩으로 메주를 쑤어 띄우고 말려서 된장과 간장을 담그는데 주로 이용되고 여름철에는 콩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며, 검은 검정콩은 콩나물 재배에 이용하였고, 찹쌀, 기장, 찰수수, 검은콩, 붉은 팥 등으로 오곡밥을 지어먹기도 한다.

그리고 콩을 불려서 맷돌에 갈아 두부를 만들거나, 푸른 콩은 삶아서 간식으로 하였으며, 영양분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좋아 혼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콩 재배 역사는 삼국시대 왜서동이전 부여조에 토지의 오곡불생오과라 하였고, 병진조에는 토지를 비옥케 하고 옮겨 심어 생산된 좋은 콩은 쌀과 같다 하였다.

신라 내해왕(2~3세기) 때에는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였다는 것이다.

콩은 당질의 함량이 적지만 30~50%의 단백질과 13~25%의 지방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육식을 적게 하는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이었으며, 또한 콩의 뿌리에서 질소를 생산하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 지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작물로서 화학비료의 공급이 일반화되기 광복이전까지는 윤작체계상 빼 수 없는 작물로 되어 있었다.

1970년대의 중반까지는 논두렁에 검정콩을 심도록 하고, 유희지는 흰콩을 재배하도록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다수확을 위하여 이식, 적심, 배토재배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지금은 수량이 많은 광고, 큰올콩, 만리콩, 단엽콩 등의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었으며,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생력재배 방법이 개발되어 논두렁 콩재배는 사라지고, 파종기 등의 기계화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콩 다수확 농가는 10a에서 80~660kg까지 생산하고 있으나, 거제는 85~160kg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 단위수량 증대는 가능하나 상품생산 목적이 아닌 자급용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수량증수는 되지 않고 있다.

콩의 이용은 직접 식용으로 풋콩, 밥밀콩, 콩죽 등이 있고, 부식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장류를 만들고, 두부비지, 콩나물, 콩장 등으로 반찬용에 이용하며, 콩깨묵, 콩깍지, 풋베기콩은 사료용으로, 콩대의 줄기는 옛날에 땀감의 연료로 하였고, 완숙전의 꼬투리는 구워먹는 콩서리가 있었다.

거제는 콩 전업농가가 없고, 1996년 일반콩의 보광품종은 둔덕면 유지마을 이충민이 2a을 재배하고, 풋콩은 신현읍 수월마을 김달호가 1a, 그리고 재래종의 콩나물콩을 장목면 울천마을 강병운이 1a에 팔당콩을 재배하는 것이 많이 재배한 농가이며, 판매를 위한 상품용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어진 실정이다.

2) 팥(小豆)

팥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옛날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동양이 원산지임은 분명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재배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성종 25년(1494) 영의정 노사신(盧思愼)이 조선 8도의 방방곡곡을 답사하여 지리, 풍속, 건축물 등의 지리서로 동국여지승람(東國餘地勝覽)을 편찬하였는데, 이때부터 세시풍속(歲時風俗)이 전래되면서, 동짓날에는 붉은 팥죽에 찹쌀로 비진 새알심을 성주와 조상에게 안택을 고사(告祀)하고 악귀를 쫓기 위해 대문간에 팥죽을 뿌렸으며, 초상 때에는 팥죽을 끓여서 문상객의 식사로 하였는데, 이는 상가의 전염병이나 식중독을 예방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동짓날의 팥죽에 들어있는 새알심을 자기의 나이대로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하였다.

영조 45년(1769) 거제도호부에 읍내, 둔덕, 사등, 고현, 연초, 하청의 6면에 서부, 동부, 일운, 이운의 속면을 두고, 그 아래에 83방(坊)을 두었는데, 사등면 두동방(豆洞坊)을 두었으므로 오늘에도 팥공이라 부르고 있다.

팥의 주성분은 당질과 괴분상(塊粉狀)으로서 세포섬유에 쌓여있기 때문에 혀에 독특한 감촉을 주며, 삶아도 전분이 풀모양으로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리아스타제의 작용을 받기 힘들어 소화가 다소 덜되어 트림이 나기도 한다.

단백질 함량도 20% 내외여서 높은 편이지만 영양가는 콩보다 낮고, 용도는 떡, 빵, 과자의 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며, 잡곡과 섞어서 밥을 지으면 단맛이 있어 좋아진다. 거제의 팥 경작 면적은 70~80ha정도 되지만, 자가소비용으로 밭 한쪽 구석진 곳에 조금씩 재배하고 있으며, 그 재배방법과 재배기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

3) 녹두(綠豆)

녹두의 굵기는 팥보다 조금 작고 색깔은 녹색이며, 주성분은 당질 50~53%이고 그 주체는 전분이며, 단백질 함량은 25~26%로 영양가가 높다.

녹두의 제품은 혀의 감촉이 팥과 비슷하나 향미가 높아 빈대떡으로 부침개나 적그리고 청포의 녹두묵, 떡속의 소, 떡고물, 녹두죽 등은 모두 좋은 품질의 음식이며, 숙주나물의 방언으로 녹두질금은 콩나물보다 비싸고 연하여 풍미가 양호하며, 멀리 인도에서는 신경계통의 약용으로도 쓰인다.

4) 강남콩(江南豆)

밭두렁에 심어오는 강남콩은 방언으로 돈비 또는 동부라 하며, 여름철 작물로 흰색

제7편 농업

이나 자주색의 꽃이 피며, 아름답고 줄기는 덩굴을 이루며, 강남콩의 꼬투리 길이는 6~9cm정도 되고, 그 속에 6~9개의 열매가 다원형이며,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크기는 콩의 배정도 된다. 강남콩은 팔처럼 밥에 넣어 먹거나 떡, 과자의 소로 주로 떡고물로 이용되고, 성숙하기 전의 푸른 꼬투리를 삶아서 간식으로 하며, 종실은 통조림이나 조림으로 만들어 반찬으로 하기도 하는데, 자가식용이나 식당의 맛보기로 나오기도 한다.

5) 완두(완豆)

완두콩은 방언으로 왜콩이라 하며, 보리같이 때에 보리논의 밭두렁에 심어 보리와 함께 월동작물로서 두해살이 덩굴식물이다. 3월중에 심으면 수확이 6월 중순으로 늦어진다. 완두콩의 줄기에 흰빛 또는 자주 빛의 나비 모양 같은 꽃이 피고, 열매는 강남콩과 같이 길이 5~6cm 정도이고, 3~5개의 콩알이 있는데 그 크기는 콩과 비슷하고, 푸른 꼬투리는 5월 초순부터 따서 그대로 삶아서 먹거나 밥에 넣어 먹으면 밥맛이 달고 소화도 잘 되며, 6월초에 수확하고 건조시켜 보관한다.

〈표 7-2-12〉

두류 1인당 연간소비량(전국)

(단위 : kg)

구분 \ 연 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콩	7.9	7.8	8.9	9.0	9.3	9.5
팔	0.85	0.82	0.83	0.80	-	-
녹두	0.2	0.3	0.2	0.2	-	-
땅콩	0.57	0.63	0.74	0.64	-	-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표 7-2-13〉

거제 두류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분 \ 연 별	1962	1970	1975	1985	1990	1995	1997
면적	345.1	792.2	860.5	703.0	656.0	581.0	470.5
계 10a 당	59.2	91.9	103.0	123.6	147.0	78.0	128.0
생산량	204.5	721.8	886.5	869.0	964.0	453.0	604.5

구 분		연 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면 적	생 산 량							
대 두 (콩)	면 적	289.6	590.8	619.4	550.0	488.0	444.0	346.5		
	10a당	60.3	99.5	117.0	125.0	160.0	85.0	135.0		
	생 산 량	161.3	587.9	727.7	685.0	781.0	373.1	470.4		
소 두 (팥)	면 적	31.0	66.9	56.3	71.0	88.0	70.3	68.3		
	10a당	45.8	72.8	75.0	93.0	110.0	35.0	135.0		
	생 산 량	13.9	48.7	57.1	66.0	97.0	24.8	69.1		
녹 두	면 적	3.0	52.3	67.4	38.0	50.0	21.3	18.2		
	10a당	43.2	69.5	56.0	89.0	105.0	64.0	130.0		
	생 산 량	1.5	36.5	38.0	34.0	52.0	13.7	23.8		
강남콩 완 두	면 적	21.3	82.3	117.4	44.0	30.0	45.3	37.5		
	10a당	63.5	66.7	54.0	190.0	114.0	91.0	109.0		
	생 산 량	27.8	54.9	63.7	84.0	34.0	41.4	41.2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5. 서류(薯類)

1) 고구마

고구마는 일명 감저라 하며, 조선조 영조 39년(1763) 견일통신정사(堅日通信正使) 조엄(趙嚴)이 일본의 대마도에서 종자를 구하여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남부해안의 섬 지방에 재배케 함으로써, 거제도와 대마도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32해리인 60km 거리에 있고, 대마도의 주섬이 아랫섬으로 옛날 통신사들이 거제를 거쳐 왕래하였으므로, 이때 처음으로 시배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마도의 윗섬은 면적이 크지만 산림이 울창하고, 아래 섬은 옛날 대마도사가 있던 이즈하라시가 있으며, 평지나 농경지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제도 지세포진의 선창마을과 교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구마 하면, 거제도 고구마 또는 옥지도 고구마를 으뜸으로 여기며, 특히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까닭으로 땅속 작물인 고구마를 재배하게 되었고, 그 토질도 황토땅이라 많은 증수를 기하였고, 맛도 뛰어났다.

고구마의 용도는 삶아서 간식으로 먹었으며, 춘궁기에는 쌀, 보리, 고구마 밥으로 보

릿고개를 이겨냈으니, 거제 사람들은 고구마를 주곡같이 여겨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해 보리 배 증산과 함께 고구마 확대재배를 권장하자, 면적이 배로 늘어나 1966년에는 그 면적이 1,606ha에서 2만톤의 생산을 상회하여 절간고구마를 주정원료로 수납하였고, 전분공장을 건립하여 농민이 원하는 생고구마를 구매하여 가공 처리하였다. 재래품종인 원기, 오끼나와 등이 주로 재배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신미, 황미, 충승 100호 등을 장려하다가, 1990년대에는 신미, 홍미, 심울미, 증미, 건미, 풍미와 조기재배용으로 일본에서 도입된 긴도끼, 고계 14호 등이 비닐멀칭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전분공장도 철수하여 절간고구마 수매도 없어졌다.

2) 감자(鑑薯)

감자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조선조 순조 24년(1824)에 중국의 간도(間島)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도입되어, 주로 산간지대에 식재하여 주식작물로 이용되었으며, 점차로 남하하여 지금은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거제지역에 감자가 재배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60년 이전까지는 부식용으로 조금씩 재배되다가, 1980년대부터 봄 조기재배를 위한 비닐멀칭 최아재배가 시작되면서 재배면적이 다소 늘어나, 1995년에는 42ha가 되었다. 주요재배 품종은 남작, 수미, 대지 등이 있는데, 가공용 감자인 조풍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 감자는 부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밥에 넣어 먹기도 하며, 서류인 고구마와 감자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60년대까지 63kg였으나, 현재는 3.3kg로 낮아졌다.

〈표 7-2-14〉

서류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 분 \ 연 별		1962	1970	1975	1985	1990	1995	1996	1997
계	면 적	692.9	1,505.6	1,107.7	4,900	280.0	232.0	213.0	198.5
	10a당	1,541	1,958	1,959	2,104	2,050	1,903	2,024	2,059
	생산량	10,680	29,481	21,697	10,310	5,963	4,415	4,312	4,088
고구마	면 적	651	1,499.5	1,099.6	418.0	243.0	190	185	169
	10a당	1,562	1,926	1,964	2,242	2,170	2,038	2,144	2,604
	생산량	10,171	28,893	21,591	9,371	5,235	3,872	3,767	3,472

구 분 \ 연 별		1962	1970	1975	1985	1990	1995	1996	1997
		면 적	20.1	6.1	8.1	72.0	37.0	42.0	28.0
감 자	10a당	1,214	964	1,304	1,305	1,860	1,293	1,940	2,088
	생산량	50	588	106	939	728	543	545	616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제2절 채 소 작 물

채소는 신선한 상태로 부식 또는 간식으로 이용되는 재배식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잎, 뿌리, 열매채소로 구분하며, 열매채소는 가지과 열매채소와 넝쿨성 열매채소로 구분한다. 1970년대부터 재배기술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터널재배법과 하우스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사계절 신선채소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소재배 면적은 증가되고 있다. 거제의 채소특산물인 칠천도 무는 작고 둥글지만, 맛이 뛰어나고 인기가 있고, 지금은 겨울철 마늘밭의 간작으로 시금치와 겨울 채소, 무, 배추, 파 등을 칠천도와 가조도에서 재배하여, 마산·부산 등지로 배편으로 반출하여 시판하고 있다.

1. 잎채소

거제지역의 잎 채소는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파, 쑥갓, 들깻잎 등으로 다양한 종류가 재배되고 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1980년대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되었고, 후반부터는 현지수요의 증가로 다시 재배가 늘어났다.

이는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바다생선회와 함께 쌈으로 먹는 신선한 잎채소의 소비 증가로, 앞으로도 재배면적이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15>

잎채소 재배 및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 분 \ 연 별		1962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계	면 적	96.7	440.8	570.9	187.1	247.0	195.5
	10a당	1,267	1,628	1,344	4,284	4,700	4,052	3,852	4,802

제7편 농업

구 분		연 별		1962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면 적	생산량								
	생산량			1,225	7,177	7,683	8,015	11,609	8,084	10,412	13,207
배 추	면 적	66.0		321.2	549.0	112.1	124.0	97.5	81.6	90.0	
	10a당		1,493	1,575	1,347	4,697	7,373	6,357	8,192	7,448	
	생산량		985	5,069	7,393	5,265	9,142	6,198	6,685	6,704	
양배추	면 적	1.1		20.4	4.5	2.5	8.0	3.0	4.6	10.0	
	10a당		1,860	2,020	2,073	2,840	3,038	3,031	3,434	3,100	
	생산량		20	412	93	71	243	97	158	310	
상 추	면 적	2.0		-	-	11.0	24.0	24.0	28.1	36.0	
	10a당		371	-	-	1,336	1,787	1,607	1,715	1,713	
	생산량		7	-	-	147	429	382	482	617	
시금치	면 적	2.0		-	9.0	35.7	39.0	31.0	34.0	63.0	
	10a당		349	-	678	1,314	1,318	1,248	1,179	1,206	
	생산량		7	-	188	469	514	387	401	760	
파	면 적	25.0		-	7.0	25.0	52.0	44.0	122.0	220.0	
	10a당		975	-	1,560	1,953	2,463	2,295	2,201	2,189	
	생산량		206	-	11	504	1,281	1,010	2,686	4,816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표 7-2-16>

산채류 재배현황(1997년)

작 물 명	면적(단보)	재 배 농 가	단 수(kg)	생산량(m/t)	단당소득(천원)
돌 나 물	3.6	10	1,475	5.4	890
독 활	7.3	10	825	6.0	824
취 나 물	1.0	4	2,300	2.3	1,280
머 위	5.3	3	1,237	6.6	1,091
곤 달 비	4.0	4	600	2.4	3,150

자료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2. 뿌리 채소

거제의 뿌리채소는 광복 이전에는 주로 자가 소비용으로 재배하였으며, 1962년에 97ha를 재배하였는데, 점차로 그 면적이 증가하여 1997년에는 새 기술의 보급으로 재배면적이 5배로 늘어나 469ha가 되었으며, 뿌리 채소로는 주로 무, 마늘, 양파, 당근 등을 들 수 있다.

1) 양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말엽에 미국과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양파 또는 일본어로 다마네기(玉蔥)라 하였으며, 양파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B₁, B₂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양파의 특수한 냄새와 매운 맛은 이류화(二硫化) 그로필이라 하는 휘발성 기름으로서 식욕을 증진시킨다. 거제에 양파를 재배하게 된 것은, 하청면 성동마을 신용우 씨가 1927년 경상남도의 알선으로 일본에 산업시찰을 갔다오면서 맹종죽 3그루를 가져와 재배한 이후, 포도와 고구마의 신품종을 도입하였고, 이어서 양파종자를 도입하여 자기 밭 2단보에 재배하여 채종하고 종묘상에 납품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문헌을 찾을 길이 없고 다만 그 이름을 다마네기라 하였는데, 1960년대에 와서 보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증산되자, 우리말로 미국에서 도래하였다는 뜻으로 양파라 고쳤다. 처음에는 밭에만 재배하였는데, 1960년대 이후는 장승포와 거제면에서 많이 재배하다가, 판로와 수익성이 좋아 논에 재배하게 되었고, 지금은 장목면 황포와 송진포 등지에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되어 30ha로 크게 늘어났다.

양파의 품종은 대부분 조생계통을 심어 제주도나 창녕 등지의 양파보다 일찍 수확하여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에는 장목이 양파 주산단지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 재배한 품종으로는 극조생으로 50ha를 심었는데, 마하 47%, 소닉 27%, 패총조생 24%, 기타 2% 수준이고, 그 외 만생종 천주황을 34.5ha를 재배하였다.

2) 마늘

우리나라에서 마늘재배 기원은 단군 이래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에 입추 후 해일신원 제후농(立秋後 祭後農)이라는 기록이 있으니, 이는 입추(양력 8월 상순)가 지난 후 돼지날에 마늘을 심는데 풍작이 되도록 풍신제사를 지낸 다음 파종하라는 뜻이고, 마늘의 종류는 굵고 대산(大蒜)을 방언으로 왕마늘이라 하며, 작은 재래종은 호산(胡蒜)으로 소마늘이라 한다.

이 마늘의 종실은 가을철의 김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파종하지 않으며, 씨

맛이 스스로 짝을 나게 하여 결국 양분이 다하면 말라 죽거나 썩어지므로, 이는 특수한 한 해살이 종자로 껍질을 벗겨서 보관하여야 한다. 거제의 마늘 재배는 밭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1980년대에 논 마늘 재배가 시작되어 395ha를 재배한 이후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문제 되어 점차적으로 줄었다가, 일운면 소동을 중심으로 논 마늘의 비닐 피복재배로 반당수량 500kg에서 1,200kg을 상회하는 혁명적 영농방식으로 바뀌었다.

마늘의 줄기채소 이용을 위한 꽃마늘 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문제는 충분한 완숙 퇴비의 시용에 있으므로 퇴비증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마늘의 영양은 파나 양파에 비하여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많고, 비타민 A, 비타민 B, B₁, B₂, C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독특한 냄새를 내는 알라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 알라인은 유효성분이 많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비타민 B₁을 활성화하고, 일부 병원균을 살균하는 강장작용을 하는 스코루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서, 가공식품의 발달로 라면, 맛나 등 인스턴트 식품에 조미료로써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3) 무와 당근

우리나라의 무 재배는 서기전 BC 50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당근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무는 봄 알타리무와 여름철 콩밭의 어린 무인 열무가 있고 가을에는 김장용 무가 주로 재배되고, 당근은 무와 함께 여름에 재배하여 가을에 수확한다.

무는 우리나라 음식의 부식으로 김치, 고기국, 시래기 등 만능적인 채소이고, 당근에는 비타민 A가 30,340 Iu(100g중)들어 있어 우량한 영양식품에 속한다.

옛날부터 전래되어 오는 설에 의하면 시력이 나빠지면 돼지간을 먹으라 했는데, 돼지간에는 비타민 A가 22,500Iu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보다 당근이 더 많다.

〈표 7-2-17〉
No. 1

마늘 · 파 · 양파의 영양가 비교

(단위 : 100g)

종 류	칼 로 리 (kcal)	수 분 (%)	단 백 질 (g)	지 방 질 (g)	탄 수 화 물		회 분(g)
					당 질(g)	섬 유(g)	
마 늘	84	77	21	0.1	19.3	0.7	0.5
파	26	92	1.5	0.1	0.7	0.5	0.5
양 파	40	89	1.2	0.2	0.7	0.5	0.5

자료 : 농공이용연구소

No. 2

(단위 : 100g)

종 류	무 지 질			비 타 민				
	칼슘(mg)	인산(mg)	철(mg)	A(IU)	B ₁	B ₂	니코틴산	C(mg)
마 늘	18	67	1.7	26	0.22	0.08	0.4	20
파	50	51	1.0	53	0.05	0.10	0.5	36
양 파	40	26	0.5	26	0.03	0.02	0.2	10

자료 : 농공이용연구소

4) 양 하(囊荷)

양하는 생강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줄기와 잎은 생강과 같으나 키가 1m 이상 자라며, 주로 밭의 구석진 곳이나 담장 밑에 심는데 뿌리가 뻗어 번식하며, 음지 또는 습기가 많은 곳에 잘 자란다. 양하의 줄기는 향미료로 쓰이며, 봄철에 오르는 줄기와 잎은 삶아서 나물로 먹기도 하며, 가을철에 땅속뿌리에서 고추모양의 여러 껍질로 쌓인 양하 봉오리가 솟아오르면 이것을 따서 식용으로 한다. 생양하는 삶아서 무침을 하거나 쇠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버섯을 넣은 전골은 향긋한 향기가 있고 쫄깃쫄깃하여, 그 맛은 거제특유의 음식이다.

이 양하 봉오리를 따지 않으면 연분홍의 꽃이 피고 말라지니, 옛날에는 봉오리를 간장에 절였다가 고추장에 넣어 양하 장아찌로 담아서, 이듬해 농사철에 중참(中站) 때 막걸리의 안주나 점심의 반찬으로 하였다.

〈표 7-2-18〉

뿌리채소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 분 \ 연 별		1962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계	면 적	98.0	593.6	476.0	537.5	422.0	442.5	394.3	469.0
	10a 당	1,335	965	1,347	1,579	1,955	2,298	3,190	2,578
	생산량	1,308	5,728	6,413	8,489	8,248	10,167	12,579	12,090
무	면 적	89.0	441.0	312.0	92.3	126.0	115.0	89.4	120.0
	10a 당	2,391	1,064	1,632	4,462	4,207	3,901	4,015	3,581
	생산량	1,257	4,692	5,240	4,118	5,301	4,486	3,590	4,513

구 분		연 별		1962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면 적	생 산 량								
마 늘	면 적	8.0	150.3	151.0	394.9	250.1	260.0	203.9	231.0		
	10a당	468	780	733	658	650	926	1,215	1,203		
	생 산 량	37	990	1,103	2,598	1,625	2,492	2,478	2,779		
양 파	면 적	1.0	2.3	2.0	44.3	35.0	60.0	84.5	69.0		
	10a당	1,425	2,000	2,360	3,760	3,243	5,097	7,370	5,901		
	생 산 량	14	46	47	1,666	1,135	3,058	6,228	4,072		
당 근	면 적	—	—	2.0	6.0	11.0	7.5	16.5	43.0		
	10a당	—	—	950	1,783	1,709	1,747	1,715	1,688		
	생 산 량	—	—	19	107	188	131	283	726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3. 열매채소

1) 가지과 열매채소

가지과 열매채소로는 고추, 토마토, 가지가 있으며, 덩굴과 열매채소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딸기 등으로 구분한다. 고추는 익은 붉은 고추를 말려서 빵아 고추장이나 김장의 양념으로 쓰고, 풋고추는 반찬으로 사용하며, 토마토는 과일과 같이 먹으며, 가지는 삶아서 반찬으로 한다.

고추는 본래 자가소비로 재배하였으며, 거제는 태풍의 피해가 극심하여 열매채소는 재배 면적을 늘리지 않았는데, 1980년대부터 품종개량과 기술보급 그리고 인구수의 증가에 따라 수요에 맞추어 재배면적이 늘어났고, 풋고추의 시판이 많아졌다.

토마토는 약 300년 전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었는데, 거제에는 1960년대초부터 재배한 것으로 전해지며, 지금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굵은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많이 재배하여 시판하고 있다. 가지는 신라시대부터 재배된 기록이 있어, 아주 옛날부터 텃밭에 몇 그루 심어 가정채소로 하였고, 여름철 가지냉국은 무더위를 사라지게 한다.

역시 열매채소의 노지재배는 태풍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는 없고, 자가 소비로 하거나 장거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재배하는 정도이다.

1980년에는 일본인들이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처음 수출을 한바 있어, 앞으로 수출

농산물로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2-19〉

가지과 열매채소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 분		연 별	1962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계	면 적		13.8	86.1	45.3	175.0	213.0	92.0	149.4	138.0
	10a당		503	463	461	152	156	453	1,019	1,584
	생산량		78	398	209	266	333	417	1,524	2,187
고 추	면 적		8.0	63.0	38.0	170.0	210.0	79.0	109.9	95.0
	10a당		225	115	160	87	116	167	223	195
	생산량		18	72	61	148	244	132	246	187
토마토	면 적		2.0	14.2	4.3	5.0	3.0	4.0	24.5	35.0
	10a당		750	1,294	2,420	2,360	2,967	3,163	4,457	5,328
	생산량		19	102	104	118	89	136	1,092	1,866
가 지	면 적		3.8	9.0	3.0	—	—	9.0	15.0	8.0
	10a당		855	1,600	1,470	—	—	1,650	1,233	1,675
	생산량		33	144	44	—	—	149	186	134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2) 덩굴성 열매채소

덩굴 또는 넝쿨에 매달리는 채소를 말하며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딸기 등이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이재배는 약 1,500년전 신라시대 때부터이고, 참외는 삼국시대 만주를 거쳐 도입되었으며, 수박은 약 500년전 조선초기에 재배하였고, 딸기는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거제는 1960년대까지 열매채소 중, 덩굴식 열매채소의 재배면적이 약 30ha 내외에서 1980년 41ha로 다소 늘어났으며, 고추를 제외한 대부분의 열매채소는 1970년대 말까지 노지에 재배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설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비닐하우스 내에 오이와 수박, 토마토, 풋고추 등이 재배되었다.

딸기는 1960년대 대나무 하우스에서 재배를 시작하였고, 1985년 사등면 오양에서 16ha의 집단재배와 그 후 밤호박을 120농가가 10ha를 재배하여, 일본에 처음 수출하기도 하였다.

〈표 7-2-20〉

덩굴성 열매채소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분 \ 연 별		1962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계	면 적	21.4	16.5	35.0	28.7	32.1	20.9	41.0	51.0
	10a당	967	2,132	749	1,798	1,816	1,861	2,483	2,859
	생산량	207	351	262	516	583	389	1,080	1,458
오 이	면 적	4.6	2.4	—	10.4	7.0	4.3	12.9	12.0
	10a당	848	1,650	—	2,000	1,114	2,395	3,015	4,050
	생산량	39	39	—	208	78	103	389	486
호 박	면 적	7.0	2.1	5.0	5.0	2.0	7.4	13.7	22.0
	10a당	1,500	1,700	1,391	1,560	3,505	1,514	2,240	2,463
	생산량	73	35	69	78	61	112	307	542
참 외	면 적	4.4	4.3	2.2	8.0	1.0	0.2	—	2.0
	10a당	806	2,000	1,636	1,650	1,600	2,000	—	2,300
	생산량	36	86	36	132	16	4	—	48
수 박	면 적	5.4	7.7	7.0	5.3	6.1	4.0	13.7	15.0
	10a당	1,020	2,489	2,120	1,855	2,573	2,275	2,218	2,560
	생산량	59	191	148	98	157	91	304	384
딸 기	면 적	—	—	1.0	—	16.0	5.0	0.7	—
	10a당	—	—	900	—	1,694	1,580	2,571	—
	생산량	—	—	9	—	271	79	18	—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4. 시설원예

시설원예란 대형 플라스틱 터널,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과 같은 시설안에서 채소, 화훼, 과수를 집약적으로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거제지역의 시설원예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읍면단위 지역은 바람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산골의 한풍지대를 피하여 양지바른 따뜻한 곳에

집단적으로 시설하여야 함으로 대단위 지역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1974년 거제면 내간리에서 파인애플 시험재배에 성공한 이후, 1980년대 크게 파급되어 대량 재배하게 됨으로써 급속히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바람에 견딜 수 있는 현대화된 철재 비닐하우스가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시설원예도 함께 확대 재배하게 되었다.

거제의 시설재배는 1995년 현재 125.7ha로 많은 면적이 늘어났으며, 그 대표적인 작물은 파인애플,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한 알로에와 신선초, 파인애플 등의 판매가 용이하지 않아 방치한 하우스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철거함에 따라 지원대책과 함께 재래식 하우스 약 100ha의 시설을 현대화 해야하는 현실이다.

다행히도 거제지역에 1995년부터 첨단유리온실이 설치되어 약 2.9ha에 장미, 토마토, 난 등을 양액 재배하고 있으며, 난은 1997년 대만에 2만분을 2천만원으로 처음 수출하였고, 계속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다.

장미와 토마토 등도 거제는 일조시간이 길고 맑은 날씨가 많아 품질이 우수하고, 온도가 따뜻한 지역이라 겨울철 난방비용이 다른 육지보다 적게 들어,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 판단되며, 연초면 연사리 안개꽃은 전국에서도 제일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멜론과 오이 등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멜론 재배는 전국에서 거제만이 성공한 것으로, 이는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지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난의 시설재배는 1959년 하청면 사환마을 김기용이 동양과 서양의 30여 종을 재배하면서 파인애플 재배를 겸한 것이 시발이었으며, 1961년 아주동 윤동수가 딸기를 죽재 하우스에 재배하였고, 1962년 연초면 다공마을 윤병모가 백합을 시설재배 하였다.

하청면 사환마을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고구마와 고추의 육묘를 하였으며, 1974년 거제면 내간리 김준의가 파인애플을 시험 재배에 성공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125.7ha로 크게 늘어나 파인애플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였다.

1987년 연초면 다공리 윤희원이 안개초, 둔덕면 아사 문판원이 고추, 술역 문홍관이 오이, 1989년 사등면 청곡 이정춘이 유자, 1990년 거제면 서정 이환영이 알로에, 1992년 거제면 고당 곽송연이 신선초, 1994년 동부면 이성보가 거제예술랜드를 설립하고 난을 재배 하였다. 이어서, 사등면 오양 김도수가 피망을 재배하면서, 1995년에 여름 멜론 생산을 성공하였고, 거제면 남동 이동재가 방울토마토의 양액재배, 1993년 일운면 대동마을에서 조팝나무, 1995년 동부면 부춘 신상민이 단옥수수, 1997년 거제면 서정 박경상이 유리온실의 장미 양액재배, 동부화훼유통 대표 원희철이 유리온실 난 재배 등의 다양한 품종의 작물들이 시설재배 되고 있다. 1997년 말 우리나라 초유의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원화 1\$ 900원에서 1,500원으로 환율이 하락되자, 석유의 도입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따라서 모든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였으니, 생산비의 과다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제7편 농업

겪었으나, 거제지역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난방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로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다. 그리고 1995년에 우리 거제시 하청면 출신의 유철성이 경기도 김포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면서, 「시설채소재배」에 대한 지도서를 출간하여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시설원예의 영농에 길잡이가 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김의부가 「거제농업현대사」를 펴내어 거제농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표 7-2-21〉

시설작물 면적 · 난방기 현황

(단위 : ha, 대)

읍 동 면	시 설 면 적			난 방 기	유 류 소 비 량
	계	가 온	무 가 온		
계	125.7	20	105.7	182	○ 가온면적 : 20ha(16%)
신 현	0.9	—	0.9	—	○ 유류사용량
일 운	3.3	1.4	1.9	16	- 계 : 1,731kl
동 부	12.0	1.5	10.5	7	- 경유 : 1,611kl
남 부	1.0	0.3	0.7	2	- 병커유 : 120kl
거 제	86.5	5.0	81.5	38	○ 1일소비량 : 9.6kl
둔 덕	8.5	3.4	5.1	30	○ 1개월 소비량 : 289kl
사 등	8.5	5.0	3.5	50	○ 6개월 소비량 : 1,731kl
연 초	1.5	0.3	1.2	6	
하 청	3.2	3.1	0.1	30	
장 목	0.2	—	0.2	—	
아 주	0.1	—	0.1	—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표 7-2-22〉

작목별 난방유류 소비량

(단위 : ha, l)

구분 \ 작목	계	토마토	오 이	고 추	멜 론	장 미	피 망	난	절 화
면 적	53.5	27.7	9.3	6.9	4.8	0.6	1.9	1.3	1.0
농 가 수	345	164	54	36	32	2	8	5	26
소 비 량	44.95	8,289	6,820	7,380	8,180	14,290	—	—	—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표 7-2-23〉

유리온실 작물재배

(단위 : 평)

연 별	소 재 지	재 배 자	면 적(m ²)	작 목	품 종
1995	거제 화원	제익준	1,100	멜론, 토마토	하계 2호 트리스터
	거제 귀목정	이정모	1,100	"	" " 레드자이언트
	거제 외 간	이인호	1,100	"	" " "
	동부 연담	이정보	400	난 석	풍란, 자생식물
1996	거제 외 간	박경상	1,400	장 미	롯데로즈, 샤피아, 샷사
	동부 산촌	원희철	4,000	난	대엽 풍란 소엽 풍란 소접란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제3절 특수 작 물

1. 신선초(神仙草)

신선초를 학술적으로 명일엽(明日葉)이라 하고, 명일초, 선삼초(仙參草), 신립초(神立草), 선약초(先藥草)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 때에는 짜다는 뜻으로 함초(鹹草) 또는 도관초(都管草)라 하였고, 일본에서는 아시타바라 이름하였는데, 모두가 명일엽을 이음하였다고 전래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선들이 이용할 정도로 귀한 식물이라 하여 신선초, 선삼초, 신립초, 선약초라는 내용을 1988년 유태종 박사는 식품보감에 저술하고 있으며, 겉 모양이 미나리과에 딸린 산속 습지에 자생하는 다년생풀 승검초 즉, 당귀(當歸)와 비슷하고, 그 뿌리는 약초로 사용한다.

생장력이 빠르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 당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1983년 송주택 등이 한국자원식품에 저술하고 있다.

거제의 신선초 재배는 거제면 범동출신 광동기가 부산뉴스타 건강연구원에 재직할

제7편 농업

때, 고향의 14농가에 생채 1kg에 3,500원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그 정식을 1992년 6월 10일부터 15일에 9천주를 1ha에 식재하였다.

신선초에는 게르마늄 460ppm, 비타민 72.5%, 엽록소 20.5mg 등 27가지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선초의 게르마늄은 혈액정화, 암 예방 및 치료, 세포부활, 악성빈혈, 지혈, 강심, 조혈 등에 효능이 있다.

신선초의 재배적지는 반음지 식물로 아열대에 자생하는 숙근초로 미나리과에 속하며, 생육적온은 20~25℃(야간 10℃), 습도 70~80%, 토질은 토심이 깊고 배수가 용이한 사양토라면 시설의 경우 재배가능하며, 재배법으로는 번식할 종자 1l를 10a에 3월 하순에서 4월 하순 사이에 파종하고, 정식은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노지재배하고, 하우스 재배는 연중 파종재배가 가능하며, 재식거리는 30×30cm로 하며 정식 후 중경제초, 비배관리, 관배수, 진딧물 방제를 하여 주면 정식 후 70일에서 8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신선초는 생채를 비롯하여 녹즙, 건강차, 고립, 효소제품, 껌, 미용비누 등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또 효과도 빠르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신선초의 명일엽을 먹고 간암이나 간질환자, 당뇨병, 위장병, 고혈압,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

〈표 7-2-24〉

연도별 신선초 재배현황

(단위 : ha, 호)

구분 \ 연 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면 적	0.6	2.1	2.1	2.2	2.3	2.0
농 가 수	14	22	22	19	21	16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표 7-2-25〉

신선초 생산·소득

(단위 : kg, 천원)

구분 \ 연 별	재 배 면 적	단 수	단 가	조 수 익	경 영 비	소 득
1992	거제 법동	3,000	800	2,400	600	1,800
1993	법동, 소량, 귀목정	5,000	1,300	6,500	1,200	5,300

자료 : 거제농협현대사

2. 땅 두릅(우두)

땅두릅은 멧두릅의 뿌리를 말린 토당귀(土當歸)와 같이 독활(獨活) 또는 땃두릅, 풀두릅 등의 이름이 있으며, 거제에서는 우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1927년 진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새영농에 몰두하던 하청면 성동 신용우씨가 경남도의 알선으로 일본에 산업시찰을 갔을 때, 경제작물을 연구한 나머지 맹종죽의 모죽과 땅두릅의 모근을 가져와 재배한 것이 거제도에 전파하게 되었다.

땅두릅은 성장에 따라 흙으로 복을 주어 봄철의 연한 줄기와 잎은 데쳐서 무쳐먹거나 부침, 소금저림, 안주 등으로 이용되며, 한약재로 발한(發汗), 거풍(擧風), 진통, 마비, 반신불수, 두통, 현기증, 관절염, 치통, 부종 등의 치료제로 이용된다.

땅두릅의 특성은 여러해살이 풀로 1.5cm에서 2m까지 자라며, 잎은 서로 어긋나고 길이가 50~100cm로 2~3회 깃꼴로 갈라진 큰 겹잎이며 어린 잎은 달걀모양 또는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5~30cm, 너비가 3~20cm로 양면에 털이 약간 있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7~8월에 산형꽃 차례로 많은 꽃이 원추형으로 모여 피는데 색깔은 엷은 황록색이며, 열매는 9~10월에 익고 검은 자색장과로 그 속에 평평한 타원형의 종자가 생긴다.

재배환경은 초세가 강하여 물빠짐이 좋은 땅에서는 어디서나 잘 자라지만, 좋은 품질과 많은 수량을 얻기 위하여는 부식질이 많고 가뭄을 타지 않는 땅이 좋으며, 햇빛은 강하게 받을수록 뿌리자람이 좋다. 번식방법은 종자 또는 묘두로 번식하며, 때로는 꺾꽂이 번식도 하나 주로 묘두 본주법으로 하며 10a당 종묘는 1,800~2,400주가 소요된다.

땅두릅은 녹채와 백채로 이용되고 있는데 녹채는 고급식품으로 이용되며, 백채는 봄 2~3월경에 톱밥이나 왕겨를 30cm 두께로 덮어주고, 그 위에 비닐을 피복하면 보온효과가 있어 새싹의 자람에 도움이 되며, 이때에 지베렐린 10ppm 용액을 100 포기당 20l 정도를 뿌려주면 더욱 생육이 촉진되고 수확기도 앞당길 수 있다.

뿌리를 약근(藥根)으로 쓸 때에는 3~4년마다 전포기를 케어내 약용으로 하고 굵은 뿌리를 잘라내고 어미포기를 분주하여 정식하며, 어린 순을 채소로 이용할 때는 2년생이면 반당 1,000~1,500kg, 3년생이면 2,500kg까지 생산되며, 약 뿌리는 3년생이면 1,500~2,000kg정도가 생산된다.

〈표 7-2-26〉

땅 두릅 영양소 함양

(단위 : %)

영양소	수 분	단 백 질	지 방 질	당 질	섬 유 질	회 분
연 화 재 배	94.51	0.97	0.34	2.41	1.13	0.64
보 통 재 배	90.61	1.07	0.36	2.47	1.73	0.76

자료 : '73 농공이용연구소

3. 알로에

알로에의 역사는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B·C 1,600년경에 기록된 이집트의 의약문헌이고, 그 이후 약나무, 화분속의 의사, 의사무용초 등의 칭호로 신비롭고 탁월한 효능이 인정되어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알로에가 우리나라의 인삼과 같이 국가 원매품으로 지정하여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하와이와 미국 전역에 널리 재배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일본에서도 식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알로에는 백합과에 속하는 열대성 다육식물이고, 그 품종은 200여종인데 대표적인 품종은 베라, 아보라센스, 사포나리아 등이 있다.

거제에서는 1996년대 초에 거제면 서정회원 알로에의 이환영이 재배를 하면서 15농가와 공동계약 재배를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거제농협과 김정문 알로에와 26농가가 계약재배 하였는데 면적이 29.7ha까지 확대 재배되었고, 고소득 작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김정문 알로에와 1kg에 400원으로 계약 재배하였는데, 봄철 산지가격의 상승으로 시중가격이 1kg에 1,500~2,000원을 하게 되자, 농민들은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 계약을 포기하고 시중에 유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자, 1993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도 대량 소비처인 가공업체에서 남아세아의 외국산을 수입하거나, 현지에 땅을 임차하여 직영농장 재배를 하였으므로 더욱 국내 가격은 떨어지고 판로는 어렵게 됨에 따라 판매방식을 분재배 형태의 방법으로 도시 소비계층을 공략하였으나, 소비는 둔화되고 가격은 더욱 하락하여 많은 재배농가는 큰 손해를 보고 알로에 재배를 그만두게 되어, 1997년에는 22%에 불과한 6.3ha에 약 50농가만 재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알로에 사포나리아란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일명 서양 인삼이라고 불려지고, 사포나리아의 약리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순환 촉진제로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모든 기능을 정상화시킨다.

둘째, 신체의 이상세포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 촉진시킴으로써 염증관계로 인한 질환에 특별한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살균작용과 유독물질을 분해함으로 위와 장을 튼튼히 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한다.

넷째, 위염, 위산과다, 간염, 당뇨, 불면증, 변비, 치질, 질염, 여성냉증, 생리불순, 화상, 동상, 여드름, 기미, 습진,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

알로에 사포나리아의 먹는 법은 생잎을 깨끗이 씻고 가시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대로 먹어도 되고, 가시를 제거한 후, 1cm간격으로 잘게 썰어 알로에 100g(1잎 약 250g)과 야쿠르트 2병을 넣어 잘 믹서하면 2인분의 생약 알로에 즙이 되므로, 유일하게 껍질 채 전부 먹을 수 있다.

사포나리아는 무해·무독이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 맛이 좋아 가족이 즐겁게 마실 수 있다.

〈표 7-2-27〉

알 로 에 재 배 현 황

(단위 : ha)

구 분 \ 연 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면 적	3.0	6.9	15.0	29.7	—	21.8	17.9	6.3
농 가 수				176	—	167	149	50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4. 맹종죽(孟宗竹)

맹종죽은 중국의 효자 맹종이 맹종죽순으로 부모님의 병을 고치게 되면서 이름이 붙었으며, 거제의 맹종죽 재배는 하청면 성동 신용우가 일제시대 진주농업학교 제1회 졸업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 새영농을 경영하였는데, 1927년 경상남도의 알선으로 일본에 산업시찰을 가서 보니, 일본인들의 기호식품인 맹종죽과 땅두릅의 재배법을 배우고 귀국하면서, 맹종죽의 모죽 3그루와 땅두릅 모근을 산록의 자기 밭에 식재하여 보급하게 된 것이다.

신용우는 호를 깨어날 소, 희생할 소(蘇)와 남녁 남(南)으로 소남이라 하였으며, 1937년 2월 25일에는 제5대 하청면장으로 5년간 재임하였고, 씨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장춘(禹長春) 박사의 농장에서 수박, 포도, 고구마, 밤 등의 육종과 재배기술을 전수받았으니, 경상남도에서는 제2의 우장춘이라 호칭하였다.

1946년 11월 13일 제9대 하청면장으로 재 임용되어 3년간 재직하면서 구릉지를 개간하여 맹종죽과 밤나무, 밭에는 수박, 포도, 고구마를 보급함으로써 하청면을 한국의 덴마크라 불렀으며, 1952년 5월 10일에는 초대 경상남도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모죽 3그루를 도입한 신용우는 자기 집뒤 산밑의 밭에 깊이 1m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퇴비와 분뇨를 충분하게 넣고 흙을 덮고 정성껏 심었는데, 겨울에 한 그루는 고사하고 두 그루는 생육하는데 성공하였다.

2년이 지나자 생육에 성공한 두 그루는 왕성하게 자랐으니, 3년째의 이른 봄에 그 모죽에서 1~2m 거리의 사방에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퇴비와 분뇨를 넣고 흙을 덮어두었더니, 그 모죽의 뿌리는 거름을 찾아 굵고 싱싱한 죽순이 사방의 구덩이마다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신용우는 「성공이다.」고 환성을 질렀다.

4년째가 되던 봄철에는 또, 팔방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듬뿍 주었더니, 4~5kg나 되는 굵은 죽순이 솟아오르니, 그날 아침에 햇빛을 받지 않은 어리고 연한 죽순을 몇 뿌

리 캐어 집으로 가져와서 삶아 반찬으로 하였는데, 그 진미는 형언할 수 없었다.

5년후 부터는 심은지 3년째의 죽순이 모죽으로 생육되자, 이를 채굴하여 맹종죽 발을 확장하고 이식하였는데 푸른 대밭은 해마다 배로 늘어났고, 죽순을 캐어 일본인이나 중국 요리집에 내다 팔았으니, 돈도 벌고 봄늦게 올라오는 죽순은 모죽으로 키웠다.

이웃 밭의 농민이 모죽 몇 그루의 할애를 요청하자 안된다고 거절하였는데, 이유는 아직 넓은 대밭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그 농민은 신용우의 대밭과 접하는 밭이 있어 자기 밭가에 깊게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듬뿍 넣고 흙을 덮어두었더니,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듬해 봄에 신용우의 대밭 모죽에서 5m정도 거리인데도 신기하게 살 쥔 죽순이 솟아올랐다.

이 모습을 본 이웃집 농부는 감탄과 기쁨의 환성을 지르자, 이를 본 신용우는 모죽 할애 요구보다 자신의 노력이 자연의 복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는 설화가 있다.

맹종죽순의 생산과 수요량이 많아지자, 차츰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1967년에는 5ha가 되었고, 1981년 48ha, 1990년에 148ha, 그리고 1993년에는 304ha로 하청면의 구릉지 야산은 온통 대나무밭이 되었다.

1993년에는 죽순 생산량이 1,446m/t으로 증수되자, 이는 전국 생산량의 95%를 점하는 재배단지로 확대되었고, 그 생산량의 50%를 처리하기 위해 1994년에 하청농협에서 죽순통조림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맹종죽순의 효능은 단백질, 칼슘, 인, 무기질, 비타민 A, 비타민 B로 경엽채류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옛날부터 노약자와 회복기 환자의 건강식품으로 이용되고, 특히 죽순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생식기능 활성화에 중요하며, 비타민제 제탄비타 보다 함량이 약 100ppm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죽순은 변비해소, 숙변제거, 장의 운동기능 촉진 등 영양학적 식품으로 한주식품개발 연구원 자료와 유태종 박사는 한국식품도감에서 죽순은 고혈압, 변비에 효능이 좋은 식품으로 기술되어 있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다.

거제에서 생산되는 맹종죽순은 품질면에서 대만의 일반대나무 죽순보다 월등하여 최고를 자랑하나, 값싼 대만산 죽순의 수입으로 중국요리 식당 등은 구매를 기피하고 고급호텔에만 소비되는 현상이고, 1994년부터 죽순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노임단가의 상승에다, 거제 유자의 확대재배에 따라 점차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죽순 채취를 포기하는 농가가 생겨났다. 또한, 대나무는 각종 통이나 장군의 테, 대바구니, 멀치건조용 삼태기 등에 쓰임새가 많았으나, 플라스틱 제품의 발달로 사용할 곳이 없어졌다.

맹종죽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1997년 거제도 특산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죽순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죽염, 대나무숯, 대나무액 생산 등에 주력하고, 또한 생선의 요리에는 죽순을 넣으므로 비린내를 없애는 등을 홍보하고 있다.

〈표 7-2-28〉

맹종죽 재배·죽순 생산량 현황

(단위 : ha, kg, m/t)

구분 \ 연 별	1967	1981	1990	1992	1994	1996	1997
재 배 면 적	5	48	148	210	304	245	245
생 산 량	—	800	1,451	1,463	1,390	450	500
생 죽 순 kg 당	—	250	290	320	320	460	460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표 7-2-29〉

죽순 외국산 수입동향

(단위 : m/t, 원/kg)

구분 \ 연 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4	1995
수 입 량	571	827	887	1,030	1,124	1,671	1,747
통조림수입가격	509	388	404	580	589	548	553

자료 : 농산물유통정보

〈표 7-2-30〉

죽순 가공 시설 현황 (1997)

(단위 : 평)

가 공 공 장	설립자	설치년도	공장면적	생 산 제 품	비 고
하 청 농 협	농 협	1994	520	죽순통조림	1호관 300g, 2호관 420g
하 청 부 업 단 지	신용균	1968	343	”	
거제도 특산 영농조합	박중하	1997	200	죽 순 주	
거 산 종 합 식 품	신양기	1996	40	죽 업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표 7-2-31〉

죽 순 의 성 분 함 량

(단위 : 100g)

구 분	가 식 부 (100g당)						회분(%)
	에 너 지 (kcal)	수분(%)	단 백 질 (g)	지 질	탄수화물 당 질	섬 유 소	
생 것	13	93.0	3.3	0.3	0.7	1.6	1.1
말 린 것	190	36.4	13.3	2.5	37.9	7.4	9.4
삶 은 것	35	90.1	3.2	0.3	4.7	0.8	0.9
통 조 림	13	95.5	1.3	0.3	2.0	0.8	0.1

No.2

구 분	무 기 질(mg)				비 타 민							폐 기 율
	칼슘	인	철	나 트 륨	칼륨	A	카 로 틴	B ₁	B ₂	나 이 아 신	C	
생 것	14	77	1.1	8	518	3	17	0.16	0.06	0.6	7	53
말린 것	77	129	5.0	·	2,595	3	20	0.11	0.14	1.3	1	
삶은 것	9	83	0.9	6	855	1	3	0.08	0.15	0.3	8	35
통조림	17	10	0.2	2	4	—	—	0.02	0.01	0.1	—	—

자료 : 한국식품개발원, '93농공이용연주소

제4절 과 수

거제지방에서 재배되는 과수는 유자, 감, 감귤, 비파, 참다래, 포도 등이며, 열대 과수인 파인애플도 재배되고 있으나 과수원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며, 유자, 감, 포도와 파인애플은 하우스 재배 정도에 그치고 있다.

1. 밀 감(蜜柑)

밀감은 1960년대 초에 우장춘 박사가 통영시 옥지도를 현지 답사한 후, 밀감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거제와 통영에서 4~5년간 농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일운면을 시작으로 동부면의 따뜻한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1970년대에 122.4ha에서 389.4m/t을 생산한 때도 있었으며, 지세포의 감수관이 묘목을 대대적으로 육묘하고 공급하였고, 국회의원 김주인은 학동에 3ha 규모의 대단위 밀감 밭을 개간 조성하였다.

그런데, 1974년의 겨울에서 이듬해 해동될 때까지 거제초유의 한파가 내습하여 영하 6~10℃의 기온이 2~3일동안 계속되었으며, 가뭄도 겹쳤으니, 따뜻한 거제도이지만 방풍림과 가마니를 덮어 피복도 하였는데, 밀감밭은 낙엽, 고엽, 고사 등으로 얼어죽었으며, 낙엽이나 고엽은 이듬해 봄 소생하여도 꽃이 피지 않은 상태였다.

1970년대 밀감 밭은 122.4ha였던 것이 1989년에는 2.1ha로 감소된 이후는 과수의 목적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정도가 되었으며, 이는 밀감나무의 생육 한계지역이라는 것을 몰랐거나 무시한 교훈을 남겼다.

2. 유 자(柚子)

밀감이 1974년 겨울철 한파로 죽게되자, 그 대체작물로 유자가 밀감보다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뿌리가 깊게 뻗는 심근성이라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자 확대재배를 하였다.

1975년에는 거제도의 북서부 해안지대에서도 한파를 이겨내므로 하청, 사등면 일대에 확대 재배한 유자밭은 399.5ha로 늘어났고 1,502.6m/t의 생 유자를 수확하였으니, 거제 최대의 과수가 되었으며, 전국에서도 유자주산단지가 되었다.

거제의 유자도입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옛날부터 전해오는 신현읍 장평리 고현만에 위치한 유자섬은 삼성조선 내 죽도의 서북쪽에 있는 면적 2,975㎡의 작은 섬으로, 옛날 중국에서 유자가 떠 내려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유래와 그 이름이 한자로 골도(橘島)라 하였으니 1970년 가을에 일본의 유자연구가가 현지를 답사하고 거제군 문화공보실을 찾아와 큰 유자나무를 심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일본에 유자가 전래된 곳이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유자섬을 경유한 지명으로 추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유자나무는 하청면 동리마을에 두 그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는 옛날부터 밭뚝, 채전, 집안 뜰에 몇 그루 심어져 있었고, 가을철에 노란색의 익은 생과는 10월 달의 시제나 사당제향 때 채수용의 5과중 하나로 차려왔고, 향냄새를 맡기 위해 장식용이나 표피의 껍질을 잘게 썰어서 설탕에 절여 먹기도 하였다.

거제의 유자재배 통계는 1972년 0.7ha에서 생과 3.2m/t을 생산한 것이 최초이고,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없었는데, 1975년 밀감의 한파 피해로 대체 재배하도록 권장하게 되었다.

1980년 초반부터 유자가격은 유자차의 수요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의 태풍 셀마호가 불어닥친 이후부터 도시민의 기호식품으로 더욱 각광을 받아 급상승하였으니, 다른 과수보다 큰 소득을 올리게 되어 재배면적은 61.8ha가 되었고, 1989년에는 143ha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사등면 청곡에서는 14농가가 유자작목반을 조직하고, 1.4ha의 유자 비닐하우스 재배가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되어, 우량품에 조기생산을 이룩하여 높은 값으로 시판하고 있다. 거제 최초의 농장은 청곡농장으로 1960년대 후반 전환사업으로 실시하여 개인농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말도 있으며, 이렇게 유자농업이 발달되어 유자의 품종개발을 원예연구소에서 실시하여 현재 4개 품종이 명명되었는데, 거제 대정농장에서 남출(南出)을 거제시농촌지도소 지도사 김의부가 명명을 의뢰하여 아조변이를 1994년에 명명하였으며, 원향(圓香)은 1995년에 고인돌 농장이 명명함으로써, 이 두 품종으로 거제가 원 고향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두 품종은 남해 1호와 다정(茶丁)을 남해에서 의뢰하여 명명하였으며, 특히

제7편 농 업

청곡 정준호가 개발한 왜성묘목 이중접목묘(탱자 + 황금유자 + 유자)는 경남의 자랑스런 농어민상 창안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거제의 유자재배는 1997년 433.1ha에서 생과 1,700m/t을 생산하여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공원가가 저렴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유자의 가공제품으로 유자청을 위시하여 유자시트론, 참맛유자, 씨티로, 유자랑, 유자정, 유자차분말, 유자식초, 유자정초, 유자정액, 유자쥬스, 유자주, 고흥유자, 사각사각유자, 소문난유자, 양지골유자 등이 있다.

유자나무의 생육특성은 일교차가 극심한 내륙지방에서는 병해가 극심하여 과실이 달리지 않으며, 거제도는 해안이 아열대 지역으로 일교차가 적고 바다바람의 파도에 따른 공기속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해양성기후 지대이므로, 감귤류의 생육에 병해가 없어 적지로 알려져 있다. 유자는 비타민 C(mm/%)가 73.4%로 100g당 105mg가 함유되어 있어 밀감의 39mg보다 훨씬 많아, 어린이의 골격 형성과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겨울철 감기를 물리치는데 특효하다고 알려져 옛날에는 고소득층의 기호식품이었는데, 지금은 일반가정에서도 유자청을 담아 상비하고 손님이 오면 따끈한 유자차를 대접하고 있다.

1995년 399.5ha에서 1,502.6m/t의 유자생과를 생산하였으니, 이는 kg당 2,500원으로 총생산액은 m/t당 250만원이었으며, 37억 5천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는데 우순풍조하여 풍작이 계속되었으나, 1997년 IMF 사태로 국민소득이 줄고 위축되자 1kg에 1,300원 또는 더 하락하여 700원선까지 내려가자, 거제의 재래시장이 온통 유자천지로 변하였다.

〈표 7-2-32〉 연도별 유자 kg당 가격변화 (단위 : 원)

연 별	1976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생 과 가 격	1,500	3,000	7,000	3,000	2,500	1,350	700

〈표 7-2-33〉 1997년의 유자제품의 가격 (단위 : kg, 원)

구 분	유 자 청(1kg)		유 자 청(2kg)		생 과(kg)		등 외 품(kg)	
	최 하	최 고	최 하	최 고	최 하	최 고	최 하	최 고
가 격(kg)	3,500	4,000	7,000	10,000	2,000	2,500	200	300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표 7-2-34〉

유자가공시설 허가 업체(1997년)

(단위 : m², m/t)

가 공 공 장	허가연도	공장면적	가 공 량	가 공 제 품
거 제 농 협	1994	408.2	60	유 자 청
사 등 농 협	"	429.0	70	"
하 청 농 협	"	690.0	100	"
거제유자영농조합	"	423.9	120	"
거제유자식품조합	1996	192.0	50	유자정액, 유자쥬스
청곡유자작목반	1995	141.6	100	유 자 청
오량유자작목반	1998	182.2	350	"
장목유자작목반	1995	288.0		"
청공대금농장	1998	54.0		"
한려농산	1994	175.0		"
거제도특산조합	1996	350.8		유자식초, 유자정초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3. 파인애플

우리나라는 1962년 미국 하와이에서 스모스가이엔과 스페살 마마레로 품종을 200여 본 도입하여 제주도 서귀 농업고등학교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이후, 1966년 일본에서 모종을 수입하여 상업적 재배로 제주에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67년 통영, 고성, 진주까지 확산되고, 1974년 거제면 외간 김준의가 시험재배를 실시하였으며, 이 후 일반시설 하우스 재배는 죽재 또는 파이프 이동식 하우스 시설로 소규모 재배형태에서 백관파이프 용접시공으로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재배 시설을 하였고, 외피+이중피복과 토양멀칭을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겨울에는 최저 -5℃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가온 상태에서 열대성인 파인애플이 거제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면적은 1986년 15.4ha에서 890m/t의 파인애플을 생산하였다.

1990년대에는 73ha로 늘어났고, 2,306m/t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

였는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경쟁력 없는 작물로 판정되어, 그 면적이 줄어 1995년에는 33.9ha에서 510m/t을 생산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재배면적도 줄고 방치상태에 있는 하우스도 있다. 파인애플은 아나나스과의 다년생 식물로, 그 품종은 대농 4·6호 스페살아마레로, 사라와크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그 재배적지는 연평균 20℃로 -5℃~43℃의 범위내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토질은 ph5~6정도로 반당 3,000~4,500주가 적당하며, 파인애플의 번식은 분주, 취목, 삼목(관아, 예아, 흡아, 괴흡아, 묘종이용)을 하면 된다. 파인애플의 개화촉성 처리는 카바이트를 물 1l에 20g를 넣어 한 포기당 약 50cc를 생장점 심부에 부어주면 개화하고, 수확은 정식 후 18~24개월이 걸리는 작물이다.

거제의 파인애플은 일조시간이 길고 맑은 날씨가 많아 그 맛과 향기가 전국 제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연중수확을 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소매로 도로변 판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제지역 특화 농산물이다.

〈표 7-2-35〉

파 인 애플 재 배 현 황

(단위 : ha, kg, m/t)

구분 \ 연 별	1986	1988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면 적	15.4	33.3	73.0	32.4	35.0	33.0	33.9	25.0	23.0
단 수	5,780	2,314	3,159	3,140	3,774	2,530	1,504	1,600	1,730
생 산 량	890	770	2,306	1,018	1,321	835	510	400	400

자료 : 거제시통계연보

4. 감

1996년에 발간한 거제지명총람에 둔덕면 시목마을이 있는데, 고려 성종 14년(995) 기성현이라 개칭하고, 거림치(巨林峙)에 현성으로 토성을 쌓고 그 위에 국마(國馬)를 머물게 하는 마장(馬場)이 있었고, 우두봉 아래 넓은 초원으로 형성된 구릉지에 국마를 방사하고 이를 지켜보았다고 하여 시목(視牧)이라 하였다.

그 후 의종 24년(1170) 정중부가 송문주의에 반항하여 경인란을 일으켜, 왕이 거제현으로 쫓겨와서 목장에서 국마를 방목하였는데, 원종 12년(1271) 왜구의 침범이 극심하여 거제도민은 모두 거창현의 속현인 가조현(加祿縣)으로 피난을 떠났으니, 거제현도

없어졌다.

조선 세종 원년(1419) 6월 상장군 이종무(李從茂)가 거제도 견내량에 군사를 집결시켜, 군선 227척에 장령 1만7천명으로 대마도의 왜구를 정벌하여 태평성대가 되자, 거창으로 피난간지 151년만에 그 후손들이 모두 돌아와 옛터를 찾아 들어가 감나무를 식재하여 시목(柿木)이라 하였다는 거제지명사 저자 제익근은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등면 사곡에 감나무골, 하청면 칠천도 대곡에서 장곶이로 넘어 가는 감나무 탐재, 서대 어신골 서남쪽에 감나무골 마을이 있으며, 하청서리 서쪽에 감나무 등, 연초담에 수몰된 배골위에 남아있는 10여호의 마을이 감나무골 등으로, 거제지명사를 보아 옛부터 민속과수이며, 제향 때 5과의 하나인 감을 집안의 뜰에 심었음을 알 수 있다.

거제에서 재배되는 감의 품종은 봉옥이 대부분이고, 단감은 적으며, 감나무는 수분을 싫어하여 여름의 장마철에는 어린 감이 떨어지는 낙과현상이 심하고, 이에 경사진 거제의 구릉지와 다량이 밭이 많아 배수가 잘 되어 감나무 재배의 적지라 한다.

거제의 과수 중 유자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984년 189ha에서 467m/t을 생산하였는데, 1986년의 태풍 셀마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후, 탄저병의 발생이 심하여 점차로 재배면적이 줄어 1995년 40.3ha에 158m/t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유자가 거제의 대표적인 소득과수로 자리잡으면서 감의 인기는 하락되고 있다.

그러나 유자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단감과 뚝은 감을 심은 농가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단감의 품종은 부유와 서촌 조생이고, 뚝은 감은 봉옥품종이 대부분으로 옛날의 토종감은 농가에서 향아리에 담아 겨울철 홍시(紅柿)로 시판하기도 한다.

5. 포도(葡萄)

거제의 포도 재배는 농업의 선구자 신용우가 향리에 맹종죽과 땅두릅을 도입하였고, 이어서 우장춘 박사의 농원을 찾아서 새 영농기술과 육종법을 전수받아, 자기집 뒷밭에 포도원 3반보를 만들어 포도를 생산한 것이 거제에서는 처음이라 전래되고 있다.

이때에 신용우는 손님이 찾아오면 포도를 대접하였고, 청포도는 양분이 많은 것이라고 하면서 손님이 보는 앞에서 껍질과 씨를 먹었다고 하며, 이후 1967년 하청리 중리 신용훈이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재직할 때 조성한 1단보의 시밭로 포도 재배가 확대되었다.

1977년 7ha에서 10.3m/t의 포도를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점차로 줄어 1982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포도 재배 농가가 없어졌는데, 1994년부터 둔덕면 농막 윤장호에 의하여 다시 포도 재배를 시작하여, 1997년 8농가 10.19ha의 포도원에 품종이 우량한 거봉과 세르단, 캠벨어리를 재배하고 있다.

〈표 7-2-36〉

거제 포도재배 농가(1997년)

(단위 : ha)

포도원 소재지	농가명	면적			
		계	거봉	세르단	캠벨어리
계	8	10.19	2.95	6.60	0.64
둔덕농막	유장호	1.70	1.00	0.20	0.50
”	곽정수	1.14	0.50	0.50	0.14
”	옥덕명	0.45	0.25	0.20	—
상서	조금출	0.50	0.30	0.20	—
하둔	이형철	0.40	0.40	—	—
거림	반창환	0.50	0.50	—	—
유지	강익순	1.00	0.40	1.00	—
옥동	오만수	4.50	0.50	4.50	—

식재연도 : '94~96, 식재거리 : 거봉 180×180cm, 세르단, 캠벨 150×150cm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6. 비파(枇杷)

거제 지방에는 일제시대에 보급되었다고 하나, 특별한 역사적 자료는 없고, 하청면에서 재배하였는데 그 경영규모는 영세하다. 그 원인은 과수의 수확량이 적고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었다.

비파는 장미과의 상록수로 열매는 노란 색이며, 크기는 살구 정도이고, 하나의 꼭지에 5~10개 정도 달리어 초여름에 수확하며, 맛이 달고 껍질채로 먹는다.

비파는 단위 면적당 수량은 다른 과수에 비하여 적고, 그 외에 냉해, 태풍, 수확시기에 장마철 등의 기상재해를 받기 쉽고 생산이 불안정하며, 또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계절성이 강하다.

거제의 비파 재배는 1978년 3.7ha에서 3.1m/t을 생산으로 차츰 줄어 농장화되지 않고, 몇 그루씩 학교나 가정에 한 두 그루를 관상용으로 심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등면 청곡 정문호가 1과당 100g정도 되는 대방품종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묘목을 생산하여 사등면을 중심으로 확대재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다.

비파는 비파 잎의 곤약온습포, 비파 잎의 즙, 비파 잎 고약, 비파주, 비파추출물, 비파잎 목욕 등에 사용되고, 그 외에 비누, 잎차, 건조분말로 캔디, 양갱, 사탕, 린스, 샴푸 그리고 열매술, 젤리, 씨술, 통조림 등 용도가 다양하다.

7. 참다래

거제의 참다래는 1977년 푸르매오랑농장이 일본에서 두 그루의 묘목을 수입하여 심은 것이 최초이고, 이 후 1983년 옥포 2동 정철호, 동부면 윤종무 등이 1ha 정도의 농장을 조성하였으나, 관리 소홀로 각 1981년과 1995년에 폐원하고 말았다.

1995년에 4ha정도의 재배면적이 있었으나, 소득이 낮아 거의 방치상태가 되었으며, 하청면 서리 윤종원이 800평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농장으로 1996년에 50m/t톤을 생산하였다.

8. 치 자(梔子)

치자는 전세계적으로 분포된 품종은 많지만,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4~5종에 지나지 않고 꽃치자, 좀치자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치자는 옛날부터 이용해 온 약초의 하나이나, 약재보다는 천연염료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거제에 치자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은 1991년부터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묘목 삼목묘 1주에 800~1,000원에 거래되고, 1993년에는 농협의 수매가격이 1kg당 3,170~4,000원에 이루어져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면서 무분별한 묘목의 생산과 대량 재배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96년에는 생산이 늘었는데, 대량 소비처인 염료공장에서 값싼 중국산 수입 또는 공장의 사정으로 소비처가 막히면서 일부를 약령시장에 가을철 내다파는 정도로 소비되고, 가격도 1kg에 500원 정도의 16~18%로 급락하자, 수확하는 인건비도 미달되는 실정이 되었다. 치자는 꼭두서니과 치자속에 속하는 상록수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분포하고, 그 열매는 한방의 소염, 이뇨, 정혈 및 식용색소, 방직공장의 염색용으로 90% 이상이 소비되고 있다.

재배환경은 연평균기온 12~14℃, 강수량 1,200~1,800mm로 토양 PH 4.5~5.5에서 잘 자라며, 삼목 또는 종자에 의한 번식이고, 여름철에 백색꽃이 피며 가을에 황갈색 열매가 익으며 서리가 내린 후 10월 하순에 수확하고, 옛날에는 실을 껴매어 매달아 건조하기도 하였다.

제7편 농업

<표 7-2-37>

거제의 치자재배 현황

(단위 : ha, kg, m/t)

구분 \ 연 별	1993	1994	1995	1996	1997
면 적	13	20	54.5	50.5	40.0
농 가 수	195	114	501	494	511
생 산 량	19	165	40	157	116
가 격	—	3,800	1,450	500	500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9. 기타 과수

거제에는 무화과, 매실, 대추, 배, 복숭아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재배여건에 맞지 않아 과수원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지명사에는 배나무골, 복숭나무재, 매실마을 등의 지명이 많이 있다.

<표 7-2-38>

과수 재배 면적 변화

(단위 : ha)

구분 \ 연 별	1967	1972	1976	1981	1986	1990	1995	1996	1997
계	9.9	42.8	178.9	181.0	315.7	301.7	598.0	551.5	526.1
유 자	—	0.7	1.6	25.0	61.8	142.4	399.5	399.5	433.1
감	6.1	9.6	20.8	74.0	160.5	74.2	40.3	35.0	30.0
비 파	—	0.1	0.9	—	1.9	0.6	—	—	—
포 도	0.8	3.0	5.8	2.2	1.9	0.6	—	—	—
파인애플	—	—	—	73.0	15.4	73.0	33.9	25.0	23.0
참 다 래	—	—	—	—	—	—	4.0	2.5	—
치 자	—	—	—	—	—	—	54.4	50.5	40.0
기 타	3.0	29.4	149.8	79.8	74.2	10.9	65.9	39.0	—

자료 : 거제시통계연보

〈표 7-2-39〉

과 수 생산량 변화

(단위 m/t)

연 별 구 분	1967	1972	1976	1981	1986	1990	1995	1996	1997
계	71.8	124.2	523.6	303.2	1,923.2	3,499.4	2,536.9	2,349.0	2,336.0
유 자	—	3.2	4.8	50.0	186.0	565.0	1,502.6	1,502.6	1,700.0
감	22.0	29.0	45.7	93.3	651.0	502.5	158.0	133.0	120.0
비 파	—	1.2	0.4	—	—	—	—	—	—
포 도	1.0	9.0	14.5	14.3	12.0	7.2	—	—	—
파인애플	—	—	—	—	890.0	2,306.0	510.0	400.0	400.0
참 다 래	—	—	—	—	—	—	78.0	50.0	—
치 자	—	—	—	—	—	—	164.8	157.0	116.0
기 타	48.8	81.8	145.6	184.2	184.2	118.7	123.5	106.4	—

자료 : 거제시통계연보

제5절 화 휘

1. 양액재배(養液栽培)

식물의 생육을 위하여 적당한 영양물을 주어 기르는 양액재배는, 1861년 이후 삭스와 크놈의 두 사람에 의해 작물의 생육과 영양요소와의 관계가 규명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후 배양액의 실험이 거듭되어 양액재배의 실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25년 이후에는 미국의 농사시험장과 농과대학의 연구진에 의하여, 물로서 기르는 수경재배(水耕栽培)와 자갈모래를 이용하는 사경재배(砂耕栽培)가 영리적인 생산방법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8월의 태평양전쟁 전후에 미군당국은 해외주둔 미군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경재배에서 돼지갈이의 역경(豕耕)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결구상추인 채소의 잎이 여러 겹으로 공같이 겹친 상추를 비롯한 양채류 재배를 실시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부터 군수용이 아닌 본격적인 상업적 양액재배가 시행되었고, 영국을 위시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도 잇따라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제7편 농업

1955년에는 흙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국제무토양재배학회가 결성되면서 많은 연구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양액재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규모의 양액재배는 198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재배면적이 매우 적었으며, 1985년에 들어서면서 4ha를 넘어서게 되었다. 거제에는 1993년 거제면 남동 이동재가 처음 시작하면서 압면 락울을 배지로 사용하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그 후 화원 제익준, 김구연 등이 수출오이 재배를 하였으며, 1995년에는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1.1ha가 증가되었고, 비닐 하우스에 풋고추 양액재배 단지가 하청면 유계에 조성되었으며, 화훼에는 거제면 서정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에 양액으로 장미를 재배하여, 지금은 최첨단 산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표 7-2-40〉 거제 양액재배 현황(1997년)

(단위 : ha)

작 물	면 적	농 가 수	피 보 제		배 지 형 태	
			유 리	비 닐	압 면	필라이트
계	4.1	15	1.7	2.4	1.9	2.2
토 마 토	1.3	3	1.1	0.2	1.3	—
고 추	2.2	0	—	2.2	—	2.2
장 미	0.6	2	0.6	—	0.6	—

〈표 7-2-41〉 거제 화훼재배 현황(1997년)

(단위 : 평)

구분 연별	소재지	대표자	참여 농가	면적	작·목	품종	재배시설
계	—	—	34	12,200	—	—	—
1990	연초 연사	신부근	3	1,200	안 개 초	풍 란	비닐온실
"	" 다공	윤형원	11	3,300	작 약	자생식물	노 지
1995	동부 연담	이성보	1	400	난 석		유리온실
1996	거제 외간	박경상	1	1,400	장 미		"
"	동부 산촌	원희철	5	4,000	난·호접란		"
"	일운지세포	서승열	5	1,500	조팝나무		비닐온실
"	" 양 화	안규신	8	400	설 유 화		"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제6절 특 용 작 물

농작물 중 용도가 특별한 것을 특용작물이라 하고,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유지작물 : 참깨, 들깨, 유채, 아주까리
- 약용작물 : 인삼, 박하, 당귀
- 섬유작물 : 삼, 모시, 목화, 뽕잎
- 기호작물 : 담배, 호프, 차나무
- 기타작물 : 버섯

이와 같이 분류하면 특용작물의 범주는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하며, 광복 이전에는 거제에서 유지작물로는 참깨, 들깨와 아주까리였고, 약용작물은 별로 없었으며, 섬유작물은 삼, 모시, 목화와 뽕나무를 재배하였는데 목화는 중일전쟁이 1937년 7월 7일 발발하자 일본군의 군복과 방한용 솜으로 공출로 탈취하기 위해 장려하였고, 양잠은 1941년 12월 8일의 태평양전쟁 때 공군의 낙하산용으로 명주베와 명주실끈을 만들기 위해 생산을 장려하였고, 생산된 누에고치는 수매하여 갔다.

〈표 7-2-42〉

유지작물 유질·유박 비교

(단위 : %)

작 물 명	유 질 (지 방 산)							유 박 구루꼬지 노레이트
	팔미친산	스 테 아 산	오레인산	니 놀 산	리론렌산	에이콘산	에루핀산	
참 깨	7.5	4.8	39.4	44.9	1.8	—	—	1.6
유채(유달)	2.3	0.8	9.5	11.9	8.6	7.7	58.5	0.7
유채(영산)	4.5	1.6	66.0	17.1	9.2	1.5	—	0.1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표 7-2-43〉

유지작물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 분	연 별	1962	1966	1975	1980	1990	1997
		면 적	58.1	31.6	130.5	357.4	266.0
계	10a 당	19.0	38.3	75.9	18.9	52.9	120.0
	생 산 량	110.1	12.1	99.2	67.0	140.6	128.4

제7편 농업

구 분		연 별		1962	1966	1975	1980	1990	1997
		면 적	10a 당	생산량	면 적	10a 당	생산량	면 적	10a 당
참 개	면 적	35.7	20.2	48.2	331.0	260.0	86.0		
	10a 당	13.9	42.0	52.0	12.2	52.0	128.0		
	생산량	88.5	8.4	25.0	40.5	136.0	110.9		
들 개	면 적	22.4	11.2	27.0	18.0	4.0	20.6		
	10a 당	13.5	31.0	63.6	58.0	82.0	85.0		
	생산량	21.5	3.6	17.1	10.4	3.0	17.5		
유 채	면 적	—	0.2	55.5	5.4	2.0	—		
	10a 당	—	65.0	103.0	192.0	89.0	—		
	생산량	—	0.1	57.1	16.1	1.6	—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섬유작물에 있어서 삼은 1966년 2.4ha, 모시는 1970년 5.3ha, 목화는 1980년 5.0ha를 마지막으로 나일론이 보급되자, 점차로 재배되지 않았으며, 양잠은 1957년 24.6ha에서 1972년 김효영 도지사의 초도순시 때, 충청도북도와 거제의 잠업실태를 비교분석하고, 거제는 태풍과 공기속의 염분함유 등으로 잠견의 품질이 나빠 거제군의 잠업계를 폐지하였으므로 농민들은 뽕나무를 뽑고 양잠이 없어졌다. 농촌부녀자들의 등잔불 밑에서 길삼하던 모습과 베틀소리, 문래소리, 다듬이 소리 등의 옛 풍속은 전설속으로 사라졌으며, 해바라기와 아주까리 등은 일제시대 공출로 받아갔으나, 점차로 재배가 되지 않고 있다.

1. 참 개

거제지명총람에 연초면 임전(荏田) 마을을 깨밭골이라 하였는데, 본래 마을뒤는 경사진 밭으로 참개를 재배하였으므로 부르게 되었으며, 1930년 앞바다를 매립하여 촌락이 형성되었고, 1942년 5월 1일 처음으로 부락구제에 따라 행정마을이 되면서 한자로 임전이라 하였다. 참개는 유지작물 중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재배되었으며, 주요 성분은 지방질이 45~50%이고,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A,B,C 등이 많이 함유되어 맛이 고소하여 양념에 쓰이고, 참기름을 짜서 비빔밥의 진미를 돋우고 있다. 참개는 콩의 간작 또는 혼작으로 재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80년대부터 비닐멀칭 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단위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다. 거제의 참개 재배

는 8~9월의 태풍으로 수확기에 도복의 손실이 크고, 비가 많이 오면 습해로 인한 병해 발생의 원인으로 고사하기도 하여 실농하기도 한다. 1960년대까지는 99일참깨, 해남참깨 등을 재배하였는데, 1970년대부터 다수성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수원 11호, 1980년대에는 단백깨, 광산깨, 중년깨, 양백깨 등을 재배하였고, 1996년에는 연초면 오비 옥정석이 진백깨 1단보를 재배하고 있다.

2. 들 깨

들깨는 동남아세아의 특산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종실 중에는 40~50%의 유분(油分)이 들어있어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하거나, 온돌방의 장판지 그리고 문화재의 건축물 단청을 할 때에 들기름을 혼합하면 오래도록 변색되지 않는다. 들깨의 잎에는 특이한 냄새와 향기가 있어 생선회나 불고기를 먹을 때 함께 씹으로 먹거나 깻잎을 간장, 고추장에 버무리거나 담가서 밀반찬으로 하기 때문에 종실생산보다는 잎을 생산할 목적으로 많이 재배한다.

3. 유 채(油菜)

유채는 참깨나 들깨보다 종실의 수량이 2~3배이상 많고, 에루진산을 비롯한 장쇄지방산 함량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급 식용유에 끼지 못함이 단점이라 한다.

이와 같이 참깨나 면실유, 땅콩, 콩기름 같이 양질 지방산으로 구성된 이들 기름보다 품질적으로 떨어지고, 유채에 50% 들어있는 에루진산은 소화흡수가 불량하고, 심장병이나 골격근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1970년대부터 개량품종으로 용당, 노적채, 영산유채, 내한유채 등이 개발되었다. 거제지역은 10월 중순에 파종하여 봄에 아름다운 노랑색 꽃이 만발하므로 유채꽃 관광자원이 되고, 벌꿀의 밀원으로 재배하고 있다.

4. 인삼(人蔘)

인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원산으로, 그 재배 시기는 역사상 상고시대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기록이 없고, 1680년대 조선 숙종 때 전남에 한 부인이 산중에서 산삼의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한 것이 기원이라고 전래되며, 그 후 황해도 최문이라는 사람이 재배비결을 개성사람에게 전하였다고도 한다. 따라서, 1830년대 헌종 때 개성의 행상인 어느 사람이 풍토가 인삼 재배에 알맞아 특수한 집약재배를 고안하여 고려 인삼이라 명명하였

다고 한다.

인삼에는 파나키론이란 배당체가 있어서 호르몬적 작용을 한다고 하며, 파나센이란 휘발성 물질은 흥분성을, 또 지방산인파낙스산이 있어 보건강장, 정력증진, 쇠약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인삼에 대한 효력을 자극적 흥분 작용과 근육의 긴장력을 높이고, 기관의 저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염증에 저항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거제지명총람에 거제면 명진, 동부면 학동, 평지 등에 삼밭골이라는 지명이 있고, 고종 17년(1880) 거제부사 이태원이 경상감사의 순영에 10월 초3일 인삼 2전6푼을 넣어 봉하고, 따로 4푼을 공물로 진상하였다고 거제읍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거제 노자산 아래 평지 삼밭골에서 인삼재배를 하였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1970년 후반 충남 금산 김종연이 사등면 지석을 중심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2ha로 늘어났다가, 1990년에는 0.5ha까지 줄어든 후는 통계가 없고, 현재는 0.2ha정도 재배하고 있다.

〈표 7-2-44〉

거 제 인삼재배 현황

(단위 : 단보)

구 분 연 별	계		묘 삼		2 년근		3 년근		4 년근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1981	7	0.47	1	0.02	2	0.21	2	0.16	2	0.08
1982	6	1.30	1	0.07	2	0.23	3	0.63	1	0.37
1984	4	0.66	1	0.06	2	0.49	1	0.11	—	—
1987	9	2.02	1	0.07	4	1.12	5	0.83	—	—
1990	2	0.47	—	—	1	0.33	1	0.14	—	—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5. 박 하(薄荷)

박하는 꿀풀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향기가 좋고, 향료, 음료, 사탕제조에 쓰이며, 한국, 일본, 시베리아 등 아시아 북부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박하는 약용식물로 잎에서 박하유를 추출하여 식료품의 향료로 하며, 관상용으로 재배하기도 한다.

거제에서는 하청면 성동 신창호의 농장을 빌려 재배한 농가가 있었으나 재배 농가는 알 수 없고, 또 다른 농가가 석포에서 밭 4.5ha에 재배하여 3~4년간 박하유를 생산하였으나 경제성이 맞지 않아 방치되어, 현재는 영리적인 재배는 없어졌다.

6. 섬유작물

섬유작물은 삼, 모시, 목화가 있는데, 거제지명총람에 삼밭골은 마전고개, 사동면 팔골, 장목면 구영과 송진포에 있고, 모시밭은 동부면 울포의 모시밭골 그리고 무명밭골은 둔덕면 화도에 있다. 이러한 지명은 옛날부터 섬유작물이 재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유작물의 재배변화를 통계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삼은 1966년 이후에는 재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모시는 1966~1980년의 통계만 있다.
- 양잠은 1957~1979년을 마지막으로 통계가 있을 뿐이다. 이는 나일론이 값싸고 세탁이 간편하며, 또한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표 7-2-45〉

섬유작물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구분 연별	계			모 시			면 화			삼		
	면 적	반 당	생산량	면 적	반 당	생산량	면 적	반 당	생산량	면 적	반 당	생산량
1962	133.6	106.1	141.8	10.7	41.3	4.4	42.9	300	129.1	80.0	129	83
1966	28.8	63.5	18.3	14.0	6.1	8.6	12.4	58	7.3	2.4	100	2.4
1970	35.3	191.0	67.4	5.3	14.0	7.4	30.0	200	60.0	—	—	—
1975	78.0	90.0	70.2	—	—	—	78.0	90	70.2	—	—	—
1980	5.0	70.0	3.5	—	—	—	5.0	70	3.5	—	—	—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7. 버섯

우리나라에서 버섯이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것은 고려 인종 23년(1145)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로,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3년(634)에 금지균(金芝菌)과 서지균(瑞芝菌)을 진상물로 왕에게 올렸다는 것이 시초이다. 그 후 조선시대에 선조가 명하여, 광해군 5년(1613)에 허준(許浚)이 완성한 동의보감에 여러가지 버섯의 약요법이 상세하게 기록

제7편 농업

되어 있다. 이 동의보감에는 복영 불로초버섯(영지), 동충하초, 저령, 표고, 송라, 뇌환, 목이, 석이, 송이, 뽕나무버섯 등이 기록되어 있다.

거제에서는 고종 17년(1880) 제195대 거제부사 이태권(李泰權)의 거제 부읍지에 거제토산의 임산물에 표고버섯이 기록되어 있고, 표고버섯 2근 5량과 마른 홍합 2말 4되와 따로 3되를 4월 초8일 경상도 감찰사의 순영에 진상으로 바쳤는데, 이는 5월 단오날의 선물로 드린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58년 동부면 동산 윤진원이 고온성 종균을 일본에서 2천분을 수입 재배하였고, 1973년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을 신현읍 삼거리와 동부면 평지 등에서 재배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거제봉산에 자목의 참나무가 자생하기 때문이고, 1989년에 62톤, 1993년에는 184톤을 생산하였고, 동부, 거제, 신현, 연초면 등에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다. 느타리버섯은 1977년 사등면 지식에서 재배하였고, 영지버섯은 1985년 동부면 구천에서 시범 재배되어 병, 톱밥, 원목 등에 재배되고 있으며, 팽이버섯은 둔덕면 우리농산에서 첨단 시설로 2,300병(1병:100g)을 생산하고 있다.

〈표 7-2-46〉 거제 표고버섯의 재배 현황(1997년)

(단위 : m²)

구분 \ 품종	표고버섯	느타리	영지	팽이	기타
면적	34,700	6,050	11,102	454	605
농가수	182	10	14	4	1

〈표 7-2-47〉 표고버섯 건포 생산량 변화

(단위 : kg)

연 별	1989	1991	1993	1994	1995	1996	1997
생 산 량	62,000	80,165	184,377	166,326	186,863	202,024	182,421

자료 : 거제군지, 거제시통계연보

〈표 7-2-48〉 거제 영지버섯 가공시설

(단위 : M/T)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연 간 가 공 량	상 품 명
우리농수산	둔덕면 상둔	김명호	4	우리네 영지
산방산영지	능포동	임춘생	4	산방산 영지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8. 약용작물

약용작물 재배는 작약, 두충, 천마, 삼백초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그 면적은 아주 적은 실정이며, 대표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다음과 같다.

〈표 7-2-49〉

약용작물 재배현황(1997)

(단위 : ha)

작 목	소 재 지	대 표 자	면 적	비 고
계			2.8	
작 약	연초면 다공	윤 형 원	1.1	
두 충	하청면 덕곡	권 중 재	0.9	
인 삼	사등면 지식	김 중 연	0.2	
천 마	신현읍 삼거	윤 병 삼	0.5	
삼 백 초	사등면 언양	조 인 길	0.1	
홍 화	일운면 소동	김 중 권	0.2	

자료 : 거제농업현대사

제7절 잠 업

잠업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은 기자(箕子)가 건국한 B·C 1123년, 지금부터 3천백 년 전에 시작되어 삼한시대의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널리 장려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세조(1450)는 종상법(種桑法)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장려하고 누에를 치도록 하였으며, 우리 거제는 일제시대에 산뽕으로 누에를 사육하고 명주베를 방직하였는데, 뽕밭 조성을 권장하자 밭두렁이나 밭 가운데 3m정도의 간격으로 줄을 지어 식재하고, 그 사이에 콩을 심었다.

이렇게 양잠을 권장한 일제는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공군의 낙하산을 만들기 위해 생산된 잠사(蠶絲)를 모두 가져갔다.

누에치기는 모내기 때인 봄철과 추수전 가을에 사육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니, 뽕밭을 늘리고 비배 관리하였으며, 봄철에는 가지 채 베어서 먹이고, 가을에는 봉잎만 따고 월동시켰다.

제7편 농업

그래서 1957년에는 뽕밭이 245.6ha이고, 양잠농가 6,640호에서 소잠(掃蠶) 매수 춘추 2,774매, 잠견누에고치 66,637kg을 공판하였는데, 1972년초에 충북지사 김효영이 경남도지사로 부임하여 거제군에 초도순시 때 양잠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치가 잘고 생산량이 적은데, 이는 거제특유의 해풍으로 공기속에 염분이 함유된 해양성기후 때문에 뽕잎이 억세고 찢어져 누에의 이빨이 상하여, 고치 1개가 2g에서 명주실을 1,000m 뽑아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니, 잠업을 권장하지 말도록 거제군 잠업계를 폐지시켰다. 그 후 농민들은 뽕나무를 뽑아내게 되어, 점차로 양잠 농가는 없어졌다.

<표 7-2-50>

거제 양잠농가의 변화

(단위 : ha, kg)

구분 연 별	상 전	양 잠 호 수		소 잠 매 수		생 산 량		공 판 수 량	
		춘 기	추 기	춘 기	추 기	춘 기	추 기	춘 기	추 기
1957	245.6	6,640	6,220	1,514	1,200	25,380	13,500	5,376	1,286
1963	285.0	3,313	2,272	629	432	11,791	7,290	6,701	4,455
1965	73.7	2,632	2,240	472	353	11,000	7,060	6,141	4,220
1971	78.9	1,123	—	402	245	—	—	8,993	5,504
1975	52.0	337	—	95	86	—	—	2,773	1,970
1979	7.0	24	—	10	8	—	—	264	32

자료 : 거제군세일람, 거제군지, 거제군통계연보

제3장 거제농업의 회고와 농지 보존책

제1절 우리 농업과 농민의 회고

우리나라는 농자천하지대본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일제시대 말까지 도시 부자의 지주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따른 착취 등으로 농민의 50%가 소작(小作)을 하였고, 춘궁기라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이 보릿고개는 풋보리의 청맥(靑麥)이나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굶주림을 이겨내고, 부자 집에서 빌려 먹은 식량의 댓가로 50%의 장리(長利)를 갚아야 하였는데, 이런 말들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번영을 힘겹게 이루어 온 통일벼의 녹색혁명이나 비닐의 백색혁명을 이루기까지 그 고귀한 노력은 기성 농민들에게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슬픈 이야기들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먹거리는 일년에 두 번 생산되니 즉,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 식량을 추곡이라 하는데, 쌀이 그 대표적인 먹거리다.

또,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하는 곡물을 하곡이라 하는데, 보리와 밀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을에 쌀을 수확할 때쯤이면 보리쌀은 이미 떨어지고, 여물지 않은 벼를 훑어다 찌서 말리고 절구에 찧어 식량으로 이용해 왔는데, 이를 찌쌀이라 하였다.

그런데 초가을에는 고구마, 옥수수 등의 먹거리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라, 보리쌀이 떨어져도 허기는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비 끝에 쌀을 수확한 농가는 농사자금으로 빌린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시장에 쌀을 내다 팔았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쌀값이 폭락하게 되고,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도 잠시나마 쌀밥을 배불리 먹게 되었는데, 이것도 잠시 뿐이고, 설이 지나면 시골 곡간에 쌓아둔 쌀이 거덜나기 시작하고, 보리 이삭이 올라올 때쯤이면 조상들 제사밥 지으려고 할머니가 숨겨둔 쌀마저 바닥이 나 버린다.

보리와 밀이 어느 정도 여물어져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 다행이고, 풋보리를 찌 말려 절구에 찧어 밥을 해먹는데, 이것을 청맥 밥이라 하였다.

청맥이 나기 전에 식량이 떨어지면, 동네 부잣집에서 연리 50%의 비싼 장리쌀을 꾸어다 먹든지, 그러지도 못하는 절량농가는 그야말로 풋보리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초근목피의 썩이나 칩뿌리 등으로 연명해야 했다.

이는 먼 옛날의 슬픈 얘기가 아니라, 1960년대 중반까지 불과 30여년 전의 일이니, 오늘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노동력이 농촌에서 줄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경지면적 7,064ha 중, 403ha인 5.7%가 1~3년 동안 휴경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국고 42조원과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신설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57조원을 조성하고,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의 확충, 산간계곡에 농로의 개설 그리고 농업기계화의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땅에 쉬는 논과 밭이 없어져 식량의 자급자족을 꼭 이룩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농지보존책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제정·공포하여 농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30%를 지주가 소유하고, 농민이 소작하는 농지를 일반 분배농지로 하였으며, 농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20%의 국유나 일본인 소유농지를 농민이 소작하여 귀속 농지로 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리에 따라 분배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공병진정책에 따라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지정하여 농경지의 잠식을 억제하였다.

1993년에 들어와 식량의 자급은 국력이라는 정책에 따라 농업의 환경개선, 농경지의 정리, 수리시설의 확충, 농업경영 규모의 농경지 상한선 확대 등으로 농업진흥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새로이 지정 관리하고 있다.

〈표 7-3-1〉

농업진흥지역 지정

(단위 : ha)

구 분 연 별	합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993	26,884	2,642.5	18,725	1,876.5	8,159	766.0
1994	26,827	2,637.0	18,668	1,871.0	8,159	766.0
1995	26,827	2,637.0	18,668	1,871.0	8,159	766.0
1996	26,827	2,637.0	18,668	1,871.5	8,159	766.0
1997	26,883	2,643.2	18,724	1,877.2	8,159	766.0

자료 : 거제시통계연보